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6호 (2013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6호 (2013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1 November 2013

① 주차_11.01-11.03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
	3. 대남 동향 9
② 주차_11.04-11.10	1. 대내 동향 1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2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11.11-11.17	1. 대내 동향 2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38
④ 주차_11.18-11.24	1. 대내 동향 4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4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5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11.25-11.30	1. 대내 동향 5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6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6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인쇄: 2014년 1월 발행: 2014년 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12 December 2013

❶ 주차_12.01-12.08	1. 대내 동향 7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7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81
❷ 주차_12.09-12.15	1. 대내 동향 86
	2. 대외 관계 95
	3. 대남 동향 99
❸ 주차_12.16-12.22	1. 대내 동향 10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11
	3. 대남 동향 11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❹ 주차_12.23-12.29	1. 대내 동향 11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7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30
❺ 주차_12.30-12.31	1. 대내 동향 13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38
	3. 대남 동향 140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1월 일지 / 144	
■ 12월 일지 / 145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1-11.03

11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훈련중 희생 해군 장병 묘지 참배(종합)(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북한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10월 중순 이 군부대 대잠수함 작전 수행 군함인 구잠함 233호의 지휘관과 해군들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희생됐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용사들의 묘에 헌화화 참배를 하고서 묘지를 돌아보며 “조국 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또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을 찾아 호텔과 휴식장 등을 돌아보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줬다고 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대화봉에 첫눈이 내렸고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보고를 받고는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말함.

김정은동향

- 11/2,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전사자(10월 중순, 구잠함 233호 지휘관·해병) 묘 방문(11.2.중통·중·평방)
 - 최룡해, 련철성, 김명식, 박태수, 조남진, 황병서, 김동화, 홍영칠, 마원춘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주성호가 사업하는 선박공장 현지지도(11.2.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동행
- 11/2, 김정은 黨 제1비서,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再次 방문(11.2.중통)
 - 최룡해, 련철성, 황병서, 김동화, 홍영칠, 마원춘, 조남진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11.1 訪北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대표단 위해 연회 개최 및 최태복(의장)·김완수(부의장)·김철혁·김영남·문상민·김성희(대의원) 등 참석(11.1,중통)
-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대표단(단장 :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 의장), 11.1 평양 도착(11.1,중통·평·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조선인민군 제621호 육종장 2단계건설 정형 현지 요해(11.1,중통·평방)

나. 경제

● ‘민심잡기’ 나선 北, 경공업에 갈수록 총력(11/3,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 들어 민심 잡기에 몰두하는 북한이 경공업 발전에 갈수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지난달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주요 과업으로 “경공업 부문에 큰 힘을 넣어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소비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다. 사회문화

● 승마클럽 만든 北 “승마는 민족의 전통 풍습” 선전(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과 3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승마풍습’이란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희승 소장의 기고문을 연재하고 “미림승마구락부의 준공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승마 풍습이 더 활짝 꽃피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조 소장은 기고문에서 말 타기와 활쏘기는 오랫동안 조선의 ‘국기’로 인정돼 왔으며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말과 관련된 속담, 성구도 수많이 전해져왔다”고 설명함.

2 대외 관계

- **일본인 관광객, 中 엔벤 통해 북한 관광(11/1, 흑룡강신문)**
 - 일본인들이 최근 중국 지린성 엔벤(延邊) 조선족자치주를 통한 북한 관광에 나섰다고 중국 흑룡강신문이 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 3명은 지난달 21일 엔벤의 투먼(圖們)통상구를 통해 북한 칠보산 관광길에 오름.

- **北, 아시아청년장애인경기서 은 3·동 1 수확(11/1,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달 26~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청년장애인체육경기대회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일 전함.

- **北노동신문 “美가 압박해도 선택한 길 갈 것”(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가해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이미 택한 길을 버리고 딴 길을 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선택한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시작된 ‘맥스선더’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힘.

- **방중 北 김형준 외무성 부상 귀국(11/2, 조선중앙통신)**
 - 김형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10월 29일부터 중국을 방문했던 김형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외무성 대표단이 2일 귀국했다”고 밝힘.

- **北 대학, 외국과 학술교류 활발…‘국제화 포석’(?) (11/3, 연합뉴스; 교육신문)**
 - 북한 대학들이 외국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10월 24일자)은 김일성종합대가 최근 평양에서 중국 연변대, 지린대와 각각 학술토론회를 열어 사회과학, 화학, 지질학, 의학·농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함.

3 대남 동향

● 北 민화협 “南, 체육에서도 대결광기”(11/1, 연합뉴스)

- 북한은 1일 전국체육대회에 '이북5도 선수단'이 참가했다며 남한이 체육분야에서도 '대결광기'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변인 담화에서 “얼마 전 괴뢰들은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여기에 월남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을 긁어모아 '이북5도 선수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지적함.

● 北교원단체, 전교조 범외노조화 비난(11/2, 연합뉴스)

-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범외노조 통보를 한 데 대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교직동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용부의 이번 결정을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탄압, 박해하고 신성한 교육을 파쇼 독재통치로 짓밟는 횡포”라며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4-11.10

11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병률 前최고재판소장 사망(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 최고재판소장을 지낸 김병률이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병률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영전에 조화를 보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병률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조명록 사망 3년 맞아 ‘전우관’ 시찰(11/9,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1인자였던 조명록 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사망 3년을 맞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았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우관에 전시된 조명록의 사진과 유품들을 둘러보았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충성한 ‘혁명전사들’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름.
- 김 제1위원장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전우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함.

■ 김정은동향

- 11/ 5, 김정은 黨 제1비서, 11.5 故 ‘김병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 영전에 화환 전달 (11.5,중통)
- 11/ 6, 김정은 黨 제1비서,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에 윤전기재 전달(11.6,중방)
 - 선물 전달모임, 11.5 최태복(黨비서), 한광복(黨부장) 등 참가하 각각 진행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조명록 사망(11.6) 3돌 즈음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 방문(11.9,중통 중방)
 - 최룡해, 김수길, 럽철성, 리재일 동행 및 ‘전우관’을 새로 잘 꾸릴 데 대한 가르침 하달

기타 (대내 정치)

- 김형권(김일성 숙부) 생일(11.4) 108주년 즈음 '김일성과 함께 주체혁명위업 개척과 항일무장혁명 투쟁 업적 회고 칭송(11.4,중방·노동신문·평방/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가의 한생·건결한 혁명투사의 고귀한 한생)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1.4,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11.9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1.9,중통)
 -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11.9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대성산혁명열사릉 참관(11.9,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변 것만큼 분배”…경제개선 조치 ‘착착’(1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 공장인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올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를 소개함.
- 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언급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며 “전반적인 경제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꿈)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그를 현실로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지방개발에 속도내나…‘자체 외화벌이’ 강조(11/10, 연합뉴스; 경제연구)

- 최근 북한 매체에서 지방공업의 외화벌이와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학술지 ‘경제연구’는 지난 10월 30일 발행한 최신희에서 지방공업 발전에 관한 논문을 3건이나 실었음.
- 잡지는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라는 논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 군들에서 자체로 외화를 벌여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다. 군사

● 北, 훈련 중 희생 해군장병에 국가표창(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지난달 훈련 중 숨진 해군 장병에게 국가표창과 노동당 당원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신은 “10월 중순 해군 제790군부대 구잠함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초소를 지키며 전투임무를 묵숨바쳐 수행했다”면서 이들에게 “국가표창과 애국열사증,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5일 진행됐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군사)

- 北, 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구잠함 233호 전사자에게 ‘국가표창과 애국열사증·노동당 당원증’ 수여 (11.6, 중통·중방)
- 국가표창과 애국열사증·노동당 당원증 수여 모임, 11.5 최룡해(총정치국장)·리영길(총참모장) 등 참가
下 진행

라. 사회문화

● 北, 식량 증산 위해 전역서 ‘탈곡 전투’ 박차(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생산한 130여 대의 이동식 탈곡기가 각 농촌 작업반에 배치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은파군) 강안협동농장의 농민들은 낱알 털기(탈곡)에서 근적인 앞자리를 차지할 목표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함.
- 더하여 노동신문도 전날 평안남도 순천시 증산농장에서는 탈곡장에 비닐 박막을 깔고 벧단을 운반해 탈곡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황해남도 은률군에서는 “낱알(알곡)의 허실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낱알 털기 계획을 90% 이상 달성하면서도 탈곡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학술지에 신용카드 소개 논문…“도입 준비해야”(11/5, 연합뉴스; 정치법률연구)

-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는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와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법률적 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분석함.

- 논문은 신용카드 거래가 카드 발행사, 회원, 가맹점 등 3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고 소개하며 “카드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카드 회원이 서명한 매출전표를 발행사에 발송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발행사로부터 지불받는다”고 설명함.

● **北 1~10월 국제체육대회 메달 360개...전년비 4.3배(11/5, 평양방송)**

-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제체육대회에서 딴 메달이 360여 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 넘는다고 5일 평양방송이 보도함.
 - 방송은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올해 체육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 있다”며 김문현 국가체육지도위 부서기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체육인들은 60여 차의 국제경기에 참가해 무려 360여 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4.3배에 달한다”고 밝힘.

● **北 개성 영통사~박연폭포 순환도로 완공(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개성의 관광 명소인 영통사와 박연폭포를 잇는 순환도로가 완공되어 “개성~영통사~박연 윤회(순환)선 도로가 형성되어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北 음악도 2명 국제하모니카대회 입상(종합)(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제7차 세계 하모니카 콩쿠르에서 북한 음악도들이 상을 탔다고 5일 보도함.
 - 북한의 림명산은 이 대회 반음계 하모니카 독주에서 2위에 올랐으며 반음계 하모니카 2중주에서도 리광과 함께 3위를 차지한것에 대해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하모니카 연주자들과 악단들이 실력을 겨루는 최고 수준의 하모니카 경연대회”라며 입상에 의미를 부여함.

● **北, 댐 완공 늦어 탄소배출권 사업 지연(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국제 청정에너지 거래에 참여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체코의 전력회사 '토픽 에너지'에서 북한 사업을 담당하는 미로슬라브 블라제씨는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던 댐 공사가 늦어지면서 수력발전시설을 유엔에 친환경시설로 등록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들이 올해 상반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댐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함.

● **북한에도 태블릿PC로 주문받는 식당 등장(1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판형컴퓨터(태블릿 PC)를 도입, 주문내용을 정보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5월 평양에 문을 연 주민편의시설 '해당화관' 식당에서 개업 이래 태블릿PC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태블릿PC 도입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식당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태블릿PC에 정보를 입력해 주방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 음식의 간이나 양 등을 선택하고 기타 요구사항을 별도로 입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함.

● **北, 국가과학원 '산업 정보화' 연구성과 소개(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과학원이 산업의 정보화를 실현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에서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산하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는 공작기계 등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위한 조종장치인 'CNC-16'과 'PLC'(프로그램논리제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개방형 PLC 프로그램'을 내놓았음.

● **北 식량배급량 10월에 크게 늘어(11/9,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지난달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인용해 9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9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북한 서커스 국제무대서 여전히 강세(11/4, 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적 예술’로 자랑하는 교예공연(서커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들어서도 국제무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신화망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 국립평양교예단은 3일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에서 폐막한 제14회 중국우차오(吳橋)국제서커스대회에서 ‘공중그네 타기 곡예’로 최우수상인 금사자상을 받음.

● 방북 이노키 의원, 日 체육단체 평양사무소 개설 합의(종합)(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비영리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일본 참의원 의원이 북측 조일(북일)우호친선협회 마철수 서기장과 일본 체육교류단체의 평양 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中 사법당국, 상호협력 양해문 조인(11/4, 조선중앙통신)

- 북중 양국의 사법당국인 북한 최고검찰소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문을 조인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최고검찰소와 최고인민검찰원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중국 베이징에서 조인됐다”며 리철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후저궈(胡澤君)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이 양해문에 서명했다고 전함.

● 北, 美 NSA 도청 파문 비난…“인권유린의 극치”(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등에 대한 무차별적 도청 파문이 불거진 데 대해 미국의 ‘인권유린’ 범죄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중앙통신은 ‘세상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인권유린의 왕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강행한 장기적이고 무차별적인 전화도청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개인 서신을 비롯해 엄격히 준수돼야 할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인 인권 개념도 없는 인권유린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함.

● **日 체대 대표단 방북…“북일 교류 강화”(종합)(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 이사장이 이끄는 일본체육대학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김영일 노동당 비서는 일본체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일본의 여러 인사와의 접촉과 교류를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마쓰나미 이사장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북·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함.

● **美 스탠퍼드 의대, 北에 결핵 치료기술 전수(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진이 이달 12일 방북해 북한 의료진에게 결핵 진단과 치료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스탠퍼드대 의대 의료진은 평양 중앙결핵예방병원에서 2주간 북한 의료진과 보건 전문가에게 결핵 진단과 간호, 치료 등의 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며 교육은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주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올해 봄에도 두 차례 진행됐음.

● **北 “한반도 평화 위협 진범은 미국…대화 구걸 안 해”(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평화를 위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힘.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범인은 미국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를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北 장성택, 日 체육대표단과 면담(종합)(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북한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일본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체육기관 대표단을 만났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장 부위원장이 일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인 이노키 의원과 그 일행,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체대 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北, 러시아 극동 성장 잠재력 주목...경제협력 강조(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7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는 '러시아 원동(극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데 주목함.
- 논문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광물·에너지·해양·삼림 자원이 풍부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최근 원동 중시, 아시아 태평양 중시를 내세우고 원동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적극 달라붙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스페인에 대사관 개설 예정(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스페인에 곧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스페인 언론을 인용해 전함.
- 스페인 일간 '엘문도'와 '유로파프레스' 등은 스페인 외교부가 북한의 대사관 개설 요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대사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라바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고 북한은 이미 건물 임차를 마쳤다고 밝힘.

● **美 한인 의사들, 방북해 의학 전수(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사는 한인 의사들이 지난달 북한을 찾아 현지 의료진에게 최신 의료기법을 전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미국 내 한인 의사들의 모임인 재미한인 의사협회 소속 8명은 지난달 1일 방북, 평양의 평양외과대학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북한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 연수를 실시했으며 연수는 신경외과, 방사선과, 안과, 마취과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짐.

● **北 노동신문, 日 조선학교 지원 중단 비난(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 핵실험 등을 이유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잇달아 중단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외교적, 정치적 흥정물로 삼으려는 치졸한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함.

- 신문은 ‘조선학교에 대한 비열한 차별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치졸하게 놀아댈수록 대일 적개심으로 더욱 끓고 있으며 그 죄과를 반드시 결산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라고 경고함.

- **北 태블릿PC, 경매 사이트 ‘이베이’서 판매(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생산하는 태블릿PC ‘삼지연’이 세계적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이베이에서 삼지연의 경매는 4달러 15센트에서 시작해 하루 만인 지난 8일 오후 경매가가 200달러까지 뛰었다고 RFA는 전함.

- **北 신문 “아태지역 평화 위협 장본인은 미국”(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시기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힘으로 반제지주적인 나라들을 견제, 제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유엔의 美 쿠바제재 반대 주목…“제재 포기해야”(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유엔이 최근 미국의 쿠바 제재 철폐를 요구한 데 주목하며 미국이 타국에 대한 ‘제재 책동’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제재의 썩은 올라미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이 지난달 말 미국의 쿠바 제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것은 “반제지주를 억누르고 세계제패 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줬다”고 평가함.

- **北,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재침 노린 도발”(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재침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거듭 비난함.

- 신문은 ‘우긴다고 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로 말하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관련 ‘개인서신을 비롯한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 인권개념도 없는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며 “인권유린의 왕초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 (11.5, 중통/세상 못된 짓말 골라하는 인권유린의 왕초)
- 장성택(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11.6 일 국회 참의원(이노키 간지)과 일행·日 체육대학대표단과 담화(11.6, 중통·중방)
- 리종무(체육상), 김성남(당 중앙위 부부장), 마철수(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신동규(조선체육대학 학장) 등 참가

나. 6자회담(북핵)

● 中 우다웨이 방북…6자회담 논의할 듯(종합)(11/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우 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방북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음.

● 中 우다웨이,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8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우 대표와 그 일행이 비행기 편으로 귀국했다고 전했다. 닷새간의 방북 기간 활동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북정책 또 비난…“우리에게 변화 기대말라”(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불순한 야망을 드러낸 체제대결각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신뢰프로세스’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점과 체제대결 기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괴뢰패당은 집권 초기부터 줄곧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니, ‘진정한 변화’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책과 노선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나중에는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고 지적함.

- **北 통신, 군수시설 화재·폭발설 부인…“南의 모략”(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의 군수 시설에서 최근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비열한 모략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비열한 모략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평안북도 군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양강도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열차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 같이 주장함.

- **北 조평통, 朴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급 비난(11/6,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올바른 예의부터 갖추라”라며 비난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필요한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결코 정상회담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며 자기의 도덕적 저열성과 상식 이하의 무례를 드러낼 뿐”이라고 밝힘.

- **北매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비난…“유신독재 부활”(11/7, 연합뉴스)**
 -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을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을 가만 놔둔다면 잔악한 제2의 유신독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정원 첩자 체포 주장…당국 “사실무근”(종합)(11/7, 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 대변인을 통해 밀입북한 국정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보위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으며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수도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고 그가 제3국에서 밀입북하여 평양까지 침입한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밝힘.

- **北단체 “南, 日 집단자위권 인정…반민족적 범죄”(11/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남한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공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옹호하고 해외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한미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계획 비난(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8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새로 창설할 한미 연합지휘기구인 ‘연합전구사령부’를 비난함.
 - 신문은 ‘북침전쟁기구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달 7일 창설 35년을 맞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범죄적인 군사기구”라고 주장함.

- 더하여 한미 연합전군사령부에 대해서도 “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구실로 새로운 지휘기구를 내오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백지화하고 내외 여론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北 조평통 “北주민 유인·납치 가담자 처단” 위협(11/8,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 정부가 정보기관 등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탈북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발언을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인신매매 행위에 가담한 자들, 우리를 헐뜯는 모략선전에 나선 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그가 괴뢰정보원 요원이건, 심부름꾼이건 관계없이 우리의 무자비한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밝히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처단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함.

● **北 조평통, 南 첨단무기계획 비난… “북침전쟁 준비”(11/9,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북침전쟁 준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우리 군이 최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미국산 첨단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이 땅을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장웅 北 IOC 위원 “남북 태권도 협력 합의문 마련 중”(11/6, 미국의소리(VOA))**

- 남북이 각각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조직이 상호 인정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인용해 6일 전함.

- 장웅 위원은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마련 중이라며 “태권도의 뿌리가 하나라는 데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전 세계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라고 밝힘.

● **北 영통사 남북 합동법회 봉행…“평화·통일 기원”(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7일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 합동법회’가 봉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법회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신도,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교직자, 영통사 승려·신도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법회에서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함.

● **北, 개성공단 3개 분과위 13~14일 개최 입장 통보(종합)(11/8,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오는 13~14일에 열리는 입장을 8일 우리 측에 전달했으나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통신·통관·통행 문제를 다룰 ‘3통 분과위’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음.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대답(11.6)】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언급 관련 “대내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무엇이라고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11.6,중통·중방)
 - 정상회담을 비판다면 올바른 예의부터 갖추어야 하며 필요할 때 언제라도 만날수 있다고 하면서 험담을 쏟아내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려는 자세가 아님.
 -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北)의 입장은 시종 일관하며 南 당국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임.
- 우리 정부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킬 체인(kill Chain)’ 구축 계획을 “미국의 대아시아 침략전략에 복종되는 한것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비난(11.7,평방/내외의 경계심을 자아내는 군사적 공모결탁)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전면가입 부인’ 및 KAMD 구축 계획 또한 ‘미국의 MD 책동에 전면가담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 이는 “미국의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등을 끌어들이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11.7,중통)
- 【‘조평통’ 대변인 담화(11.8)】 우리 정부가 ‘北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탈북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락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유인·납치·모락선전·인권을 해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단' 위협(11.8, 중통·중·평방)

-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인신매매행위에 가담한자들, 모락선전에 나선자들을 비롯하여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무자비한 처단대상으로 될 것이며, 단호한 행동조치는 선포된 이 시각부터 즉시 시행되게 될 것임.
- 국가안전과 자기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조치는 공화국법에 따른 응당한 권리이며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도 정정당한 것임.

11.11-11.17

11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과학자·기술자대회 개최…“강성국가 역군” 강조(종합)(1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과학자·기술자대회를 열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자·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도당 책임비서들, 공로 있는 과학자·기술자들 등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와 기념사진(1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4일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념촬영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치하한 뒤 “과학자·기술자들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을 자각하고 과학기술성파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어머니날’ 맞아 여성들에 충성심 독려(종합)(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 “세상에는 어머니가 많지만, 조선의 어머니들처럼 강직하고 충의심(충성심과 의리) 깊고 헌신적인 어머니는 없다”고 독려함.
 - 또한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데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라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들(김일성 생모 강반석, 김정일 생모 김정숙 지칭)의 혁명생애와 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이상화에 색깔 입히기…‘컬러 석고상’ 등장(11/1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고지도자 이상화 작업에 시각적 이미지를 부쩍 신경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최근 완공한 ‘위터파크’인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소개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이곳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연색 석고입상(立像)’을 세웠다고 전함.

- **北 김정은, 軍 식료공장 찾아 ‘어머니날’ 축하(1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어머니날’을 맞아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인민군 산하 제354호 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연 건축면적이 6천900여㎡에 달하는 이 공장이 사탕·과자와 빵을 대량 생산해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식료가공공장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라는 과업을 주고 생산에 필요한 첨단설비를 보내줬다”고 소개함.

김정은동향

- 11/11,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11,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수길, 렬철성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黨창건일’에 보내온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11.11,중통)
- 11/12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11월2일공장 현지지도(11.12,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황병서(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1/14 김정은 黨 제1비서, 11.14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14,중통)
 - 박봉주, 최태복, 오극렬,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한광복과 도당 책임비서들 참가
- 11/16,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현지지도 및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11.16,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서흥찬(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황병서(黨 부부장) 등 동행
 - 김정은, 새로 조성되는 만경봉체육단 축구훈련장 시찰(11.16,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리영길(軍 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한광상(黨 부장),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 등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 대표단 단장리영철 당중앙위 부부장, 11.8 ‘제15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포르투갈)’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연설(11.10,중통·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 현지 (11.11, 중통·평방)
 - 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 데 대하여 언급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11.13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1.13, 중방·평방·중통)
 - 주석단 : 박봉주(보고), 최태복(김정은 저작 '과학기술 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전달), 오극렬,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 등
 -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허택(전력공업성 부상), 태종수(함경남도黨 책임비서), 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 원장) 등 토론 및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전체 과학자·기술자들은 김정은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 대전을 과학과 기술로 힘차게 추동하는 참된 혁명가, 애국자가 되자'고 호소(11.13, 중방·평방·중 통/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생일축하 모임, 11.12 청류관에서 진행 및 한광복(黨 부상)·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11.13,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잠업법' 제정...“양잠산업 법제화로 경공업 발전”(11/17, 연합뉴스; 민주조선)
 -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8일자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뽕밭 조성관 리, 누에고치 생산과 수매 등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등을 담은 4장 44조의 잠업법을 채택함.
 - 잠업법은 법의 '사명'이 양잠산업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다. 군사

- 北 김정은, 軍 심리전부문 장병들과 기념사진(11/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1 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공일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 말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 제도 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치하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들이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 김정은, 軍 식품가공공장 시찰(1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 11월2일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이 공장이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47년 5월 설립됐으며 “과자, 사탕, 빵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해 군인들에게 공급해주는 종합적인 식료 가공기지(공장)”라고 소개함.

● **北 서흥찬 軍 상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승진 확인(11/1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대대적인 군부 물갈이가 이뤄진 가운데 소장파인 서흥찬 군 상장(우리의 중장)이 국방부 차관격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354호 식료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한 서흥찬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소개함.

라. 사회문화

● **北, 중국어 자동번역프로그램 개발(1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4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중-조(북) 기계번역프로그램’이 출품돼 관심이 쏠렸다고 11일 보도함.
-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 북한말로 자동번역하는 프로그램으로, ‘혼합형 다엔진 처리기술’을 이용해 번역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빠르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고려항공 새 승무원 유니폼 눈길…‘여성미’ 강조(11/11,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가 공식 페이스북에 새 유니폼을 입은 고려항공 여승무원의 사진을 게재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새 유니폼은 과거의 유니폼과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이 매우 세련된 것이 특징이며 최근까지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은 고려항공 여승무원들의 유니폼은 위아래 모두 붉은색인데다 평범한 디자인이었다고 전함.

- **북한 쌍둥이자매 싱가포르 하프마라톤서 1,2위(11/11, 연합뉴스)**
 - 북한 여자 마라톤의 기대주인 김혜경·혜송(20) 쌍둥이 자매가 10일 싱가포르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싱가포르 언론을 인용해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언론에 따르면 김혜경은 10일 열린 ‘2013 그레이트 이스턴 여자 마라톤’ 대회 하프 마라톤(21.1km) 부문에서 1시간 15분 59초로 우승을 거머쥐었음.

- **北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1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발하는 개성 첨단기술 경제특구가 공사에 들어가며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을 개성시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앞서 지난달 통신은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에 합작하는 방안을 북한의 유관기관들과 합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며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로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 **北 과학원 버섯연구소 ‘맹활약’…기술보급에 박차(11/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중앙버섯연구소에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지에서 건설되는 버섯공장에 대한 기술지도서 작성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규모의 강습을 통해 새 재배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연구소에서는 이달 초부터 각 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버섯재배기술 강습이 열리고 있으며 연구소 준공 이후 ‘버섯재배 기술 문답집’ 등 버섯 관련 도서도 새로 집필해 버섯재배 단위들에 배포했음.

● 北, ‘어머니 날’ 분위기 띄우기…“기념품점 복적”(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올해 제정 2년째를 맞는 ‘어머니 날(11월16일)’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13일부터 기념상품 출시 소식과 손님들로 활기를 띤 기념품 상점의 풍경을 잇달아 보도하기 시작함.
- 중앙방송은 14일 ‘어머니 날’ 축하장을 판매하는 평양역 앞 기념품 상점이 많은 손님으로 흥성이고 있다며 점원과 고객의 들뜬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함.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김父子 ‘태양상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여러 단위들에서 진행(11.11,중통)
- 강원도 문천시, 함경남도 리원군, 장진군, 부전군, 허천군, 요덕군, 평안북도 동창군
-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52.11.13, 내각 결정 제203호) 61주년 즈음 김일성의 ‘이민위천’ 칭송 및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 선전(11.13,평방/전반적 무상치료제·전화의 불길 속에서 실시된 전반적 무상치료제)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아시아국과 ‘축구 외교’ 활발…“대외관계 과시”(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북한 4·25체육단 남자 축구팀과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전날 평양에서 열려 4·25팀이 2대0으로 이겼다고 전함.
 - 양국 간 축구경기에 앞서 싯다르타 다누수브로토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국회 상원 격) 의장 등이 이달 1~4일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만났고, 지난달 21~23일에는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함.

- **러시아, 北에 의료기구·의약품 지원(11/11,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평양에서 러시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무상으로 기증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인계인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전하며 여기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북한 주재 WHO 대표가 참석했다”고 덧붙임.

- **北·러시아, 노동자 파견절차 간소화 회의 개최(11/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12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에서 당국간 실무회의를 열어 노동자들의 상호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는 아무르주 정부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상대방 국가 국민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실무그룹 제4차 회의를 한다고 전함.

- **英 적십자, 내년 북한에 48만弗 지원 계획(11/12,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적십자사가 식수위생 사업 등을 위해 내년 북한에 48만 달러(약 5억1천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영국 적십자사의 지원금은 산지에 나무를 심고 상수도망 개선 등을 통해 식수 위생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도 이를 위해 40만 달러(약 4억 2천만원)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민둥산에 묘목 73만 5천 그루를 심도록 도왔음.

● **국제적십자, 올해 北 수해지원사업 마무리(11/13,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올해 북한 홍수 피해지역에서 벌여온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IFRC는 지난여름 북한에서 장마로 피해가 나자 수재민들에게 이불과 주방 기기, 수질 정화제 등 각종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홍수 발생 시 대응 교육을 하는 등 지원사업을 벌였으며 이달 초 이를 마무리했음.

● **화교 자본, 개성 과학기술특구 개발에 참여(종합)(11/1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사업에 참여한 평화경제개발그룹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 그룹의 회장격인 대표는 장수남으로, 사장격인 총경리는 '허택승'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신문은 앞서 조선중앙TV가 11일 내보낸 개발구 착공식 영상에서 장수남 대표가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장 대표는 북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투자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허택승 총경리는 중국계 싱가포르 또는 홍콩계 인물로 추정됨.

● **北 김영남, 필리핀 대통령에 태풍 피해 위로전문(1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최근 귀국의 여러 지역에 들이닥친 강한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귀국 정부, 인민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힘.

● **北외무성 “北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보도는 헛소문”(11/14,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4일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반군 공습에 가담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적대세력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일부 외신은 우리가 시리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반란군에 대한 공습에 우리 비행사들이 직접 참가하고 있다는 등의 각종 허위·날조자료를 유포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올해 아세안과 인적교류 강화…“외교 다각화”(11/14,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편향된 외교를 탈피하고자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당·정·군이 올들어 최근까지 아세안 회원국들과 상호방문 교류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함.

● **獨 민간단체, 北에 2년째 유기농법 전수(1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민간단체 유기농연구소(FiBL)가 지난해부터 2년째 북한에서 유기농법 전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5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양 인근 협동연구농장에서 북한 농업지도자 20여 명에게 유기농법을 전수하고 있음.

● **北 노동신문 “美 군부의 ‘북 위협국가’ 발언은 궤변”(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미국 군부 수뇌들이 최근 잇달아 북한을 ‘위협국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 “황당무제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강도적 논리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3 세계안보포럼’에서 북한과 이란을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도 7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북한이 동북아와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 이같이 말함.

● **北신문 “을사조약은 무효…日 역사의 심판 받을 것”(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108년을 맞아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일제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며 이 같이 밝힘.
- 또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 죄악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본 반동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 끓이고 있는 우리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 배, 천 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평화경제개발그룹, 11.11 개성에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건설’ 착공식 진행 및 장수남(평화경제개발그룹 대표)·허택송(그룹 총경리) 등 참가(11.13,중통)
- 駐中 기니 대사는 착공식에서 ‘개발구 건설이 北과 이웃 나라들의 전면적 협조와 신뢰구축, 경제장성과 무역 및 기타 교류를 촉진시키게 될 것’ 강조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우리에게 ‘비핵화 사전조치’ 먼저 기대말라”(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미국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사전조치란 신기루나 같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국무성대변인의 6자회담 관련 ‘북핵 발언’(비핵화 사전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등)에 대해 ‘행동대 행동은 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11.11,중통 노동신문·중방 평방/사전조치란 신기루나 같다)

3 대남 동향

- **北 신문 “주민 탈북 유도하는 南당국 징벌” 거둬 위협(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남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징벌’을 거둬 다짐함을 밝힘.
 - 신문은 ‘단호히 징벌해야 할 인권범죄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들의 유인납치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가담한 자들과 주모자, 공범자들을 모조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나서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차대통령 유럽순방 발언 비난(11/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기간 북한에 핵 포기과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또다시 박 대통령을 ‘박근혜’로 지칭하며 이 같이 비난했으며 이번 발언으로 앞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순전히 위선이었으며 그의 속통에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흥심만 들어차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함.

- **北신문, 김 국방 발언 비난…“멸망할 쪽은 南”(1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남북이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침 전쟁 선언”이라며 전쟁이 나면 멸망할 쪽은 오히려 한국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멸망을 재촉하는 호전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실수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북침전쟁 선언”이라며 한국이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 순간 도발자들은 모조리 괴멸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함.

- **北 “南 ‘원칙론’은 남북관계 성격 무시한 대결정책”(1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성격을 무시한 대결정책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원칙고수론을 해부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하는 데 대해 “북과 남 사이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이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비판 책자 발간(11/14, 연합뉴스)**
 -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우리민족끼리’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출판사에서는 최근 ‘원칙론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했으며 이 책자는 “보수집권세력은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관계로 뜯어고쳐 북과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도 하고 북의 변화 유도를 기본목표로 한다는 ‘대북원칙론’을 내세웠다”라며 이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대결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백지화해야”(1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북핵문제 해결’, ‘북한 인권법 제정’,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된 것은 “임기 전 기간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朴대통령 유럽순방 발언 원색비난(1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이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한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맹비난하며 보도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앙방송에 따르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 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 행각을 단죄한다’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 “국방위 정책국은 이 기회에 박근혜와 그 패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우리의 핵과 병진노선에 대해 더 이상 함부로 재갈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진보당 해산청구 비난…“정치모략”(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정부가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모략사건”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적 모략’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 청구와 이에 영향을 미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같이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11.11 우리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 對北발언(정상회담, 핵폐기, 인권 등)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을 통해 ‘정상회담 발언은 위선이었으며, 우리(北)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흉심만 들어차 있다고 실명 거론 비난(11.11,중통)
- 【北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11.14)】 대통령 서유럽 순방시 對北발언 관련 ‘핵 포기과 미사일 폐기는 자주와 존엄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 것과 다름없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사대매국노의 전철을 밟으라는 것이며, 민족반역의 길에 들어서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라며 실명거론 원색 비난 및 경고(11.15,중통·중방/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OO의 떠돌이행각을 단죄한다)
-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우리의 對北 원칙론에 대해 ‘△6.15를 전면부정한 반통일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체제대결론 △전쟁을 추구하는 동족대결론, 북침전쟁론’이라고 비난하며 ‘조국 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떠난 다른 원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11.14,중통·노동신문·중방/남조선 당국의 원칙 고수론을 해부함)
 - ‘북남관계 파국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題下로도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용납 못할 대결전쟁론’이라고 비난(11.14,평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1호(11.14)】 우리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단절 계획이며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하고 동족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11.14,중통·평방)
- 【중통사 논평】 ‘日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두둔, 인정한 것은 ‘전범죄’에 대한 묵인인 동시에 재침 야망에 대한 공공연한 인정이고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자청해 나서는 역적행위’라고 지속 ‘정부’ 비난(11.14,중통/조선 사람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중통 논평(11.15)】 우리 軍의 美 첨단무기 구입 계획(패트리엇 미사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에 대해 ‘한반도 지역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동족대결 책동’이며 ‘상전의 아시아제책 책동에 머슴질 하는 쓸개 빠진 망동’이라고 비난(11.15,중통/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호전적 망동)

11.18-11.24

11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김일성군사종합대 연구원 건설현장 시찰(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교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김정일 군사연구원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북한은 작년 10월 인민군 간부 양성기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존의 대학연구원을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개칭하고 개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중앙통신은 김정일군사연구원 건설 사업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黨 위상 강화나선 北, 이번엔 노동당 찬양가 띄우기(11/2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당(黨)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해온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노동당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만들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이 지난 19일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라는 노래의 가사와 악보를 게재한 후 북한 매체는 연일 고위간부를 앞세운 각계 반응을 쏟아내며 ‘신곡 알리기’에 힘쓰고 있음.

김정은동향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18,중방)
- 1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전체 노동계급에게 감사 및 선물 전달(11.18,중방)
 - 감사 전달모임, 11.17 최룡해(총정치국장) 참가下 진행
 -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이 ‘생산공정 현대화로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되었다’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다”고 선전(11.18,중통)
- 11/2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 시찰(11.2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황병서·마원춘(黨 부부장) 동행
- 11/21,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밑에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1.21, 중통·중방)
 - 최룡해(개회사), 김원홍, 김수길, 럽철성, 조경철(보고)을 비롯한 무력기관 지휘성원들과 모범적인 보위 일꾼들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 및 기념 촬영(11.21,중통·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73.11) 40돌 기념보고회, 11.19 태종수(함경남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함흥대극장에서 진행(11.20,중방)
- 김일성 저작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발표 55돌 즈음 '사상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당과 인민에게 있다'고 강조(11.20,중통·노동신문/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나. 경제

● 北 “손노동 없애자”…공장 ‘무인화’ 선전(11/1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빵과 당과류 등을 생산하는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이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실현했다며 “현대화의 결과 공장에서는 적은 노력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노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손노동이 없어져 여성종업원들의 노동생활이 그대로 흥겨운 노래로, 기쁨으로 되고 있다”고 자랑하며 앞서 지난 1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아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손노동을 없애고 노동자들을 힘겨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13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발표(종합)(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각 도(道)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함.
- 중앙통신은 “조선에서 도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하며 특히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혀 대외개방을 염두에 둔 신의주 특구를 2002년에 이어 다시 개발할 것임을 시사함.

기타 (대내 경제)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자들의 종전 같은 기간에 비해 “굴착: 4만 5,000㎡, 성토: 5만 6,000㎡, 콘크리트치기: 1만 1,500㎡ 추가 수행” 선전(11.19,노동신문·평방)

- 신의주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의 “9월 말까지 114.3% 초과 수행” 및 함경북도여단 일꾼들의 “세포등판 축산기지건설” 성과 보도(11.19,노동신문·평방)
- 청진 수지관공장(함경북도)의 연간 ‘수지관생산 계획 120% 초과 수행’ 및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새 합숙 건설” 추진 선전(11.19,중통·중방)
- 北, 13개 ‘경제개발구’(각 道)와 ‘특수경제지대’(평안북도 신의주시) 설치 최고인민회의 상임투 정령 (11.21) 발표(11.21,중통)
-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신의주시 용운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만포시 미타리·포상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위원군 덕암리·고성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신평군 평화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송림시 서송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원산시 현동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함흥시 해안구역),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북청군 문동리·부동리·종산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청진시 월포리·수성동·남석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어랑군 용전리), △함경북도 온성삼관관광개발구(온성군 온성읍),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혜산시 신장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영남리)

다. 군사

- 北, 한미훈련 대응 중 사망 해군 ‘따라배우기’ 독려(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 사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는 용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자’와 2면 전면에서 정론 ‘생이란 무엇인가’를 실어 이들의 ‘희생’을 집중 부각함.
 - 신문은 지난달 동해에서 작전 중 숨진 해군장병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서 모든 주민이 이들의 ‘삶과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계속 독려하고, 특히 3면에는 사망한 해군들이 쓴 자작시와 노동당원 신청서를 비롯한 유품을 소개하는 등 이들을 칭송하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함.
- 北, 20년 만에 軍 ‘보위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참석(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 하에 “조선인민군 제 2차 보위일꾼대회가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에 군중·군단 정치위원들, 육·해·항공·반항공·전략로케트군과 각급 군사학교를 포함한 무력기관 보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마식령스키장 내달 완공…관광객 모집(11/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건설 중인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이 다음 달 완공돼 내년 1월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Uri Tours)’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지난 16일 VOA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말 스키장 건설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 첫 스키 관광객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소형 풍력발전기 매년 1만대 이상 생산 계획”(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풍력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만대 이상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이 서부지역의 대안전기공장과 동부지역의 김책풍력발전기공장 두 곳을 전문적인 소형 풍력발전기 생산공장으로 정했다며 “앞으로 이 공장들을 현대화해 0.3~10kW급 풍력발전기를 매년 각각 5천대 이상씩 생산하게 된다”고 밝힘.

- **北 평양서 주택 리모델링 붐…전문 업자 호황(1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 평양시의 부유층 사이에 주택 리모델링 붐이 불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 인테리어 업자도 호황을 누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한 한 평양 시민은 RFA에 “평양시 중구역과 대동강구역 주민들 사이에 부엌과 세면장(화장실)을 개조하는 바람이 불었다”며 “요즘 이 장사(인테리어 사업)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고 말함.

- **北 학술지, 첨단범죄 대응 ‘과학 수사기법’ 강조(11/21,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희(계간)는 ‘수사정보 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기술지능형 범죄들”에 대응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의 필요성을 제기함.

- 논문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불순·암해(남몰래 해를 끼치는 것) 분자들과 낡은 사상에 무젓은(물든) 일부 범죄자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악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감행하고 있으며 그 사소한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인구 대비 자연재해 규모 세계 10위(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국가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연구소를 인용해 21일 전함.
- 벨기에 루뱅대학의 재난역학연구소는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13%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 대비 피해 규모가 큰 나라라고 밝힘.

● **평양과기대, 외국인 단기 강사 구해(11/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영국계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이달 18일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평양과기대에서 내년 봄에 가르칠 CS(Computer Science, 컴퓨터공학)와 EE(Electrical Electronics, 전기전자공학) 강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美의 ‘北 위협론’ 비난…“군비증강 구실”(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등 군비를 강화하는 데 대해 “침략적 목적을 이뤄보려는 어리석은 놀음”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 광고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저들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이집트 문화협조집행계획서 조인(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집트가 2013-2015년도 문화협조집행계획서를 18일 평양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황호남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조인식에서 집행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北, 독일 의사에 명예의학박사학위 수여(1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독일-북한 보건연단회장인 알프레드 홀츠그레프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홀츠그레프 회장이 의학과과학기술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심장 혈관, 흉부, 뇌신경외과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함.
- **북한, 중국기업 투자심리 회복 인간힘(11/1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얼어붙은 대북투자 심리를 녹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 홈페이지를 인용해 19일 연합뉴스가 전함.

-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무역성은 지난주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주요 기업 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교류 활동을 벌였으며 북한은 지난 14일 리용남 무역상이 직접 중국 기업인 방문단을 만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힘.

● **北 “텐안먼 차량돌진 사건은 테러”...‘中 입장’지지(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20일 6면에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0월 28일 중국의 천안문 광장 앞 도로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전함.

- 베이징의 심장부인 텐안먼 광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위구르인 일가족이 탄 차량이 행인들에게 돌진하면서 폭발해 탑승자를 포함한 4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위구르 독립운동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의 소행이라고 밝힘.

● **또다른 美남성, 지난달부터 北역류중인 듯(종합)(11/20,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 남성을 구속한 채 출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 베이징발로 보도한 것을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작년 11월부터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를 억류하고 있어 이번 일이 북한과 미국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미국인 남성은 고령으로 관광 목적의 비자를 취득한 후 북한에 입국했으며 한국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화물검색 포함(11/20, 미국의소리(VOA))**

- 중국 정부가 올해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중국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소형무기와 경무기, 관련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의 대북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유엔 인권결의안 비난…“불신 격화”(11/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함.

- **러시아 법원, 불법 오징어잡이 北 선장에 유죄판결(11/21, 러시아의소리(VOR))**
 -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영해에서 허락 없이 오징어를 잡은 북한 선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러시아의 소리’(VOR) 라디오 방송이 21일 보도함.
 - 방송은 “러시아 나훗카시 법정이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관련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오징어를 낚시한 조선(북한) 어선 선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조선 선장에게 300만 3천원의 벌금과 생태학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함.

- **北, ‘中 체포’ 탈북자 송환 촉구…“유인납치” 주장(11/21,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 기관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관국들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단호히 반대 배격하며 국제법적 요구대로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北, 수산물·목재 합작공장 러 연해주에 제안(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수산물과 목재 분야의 경제협력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에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방송은 연해주 정부와 프리마메디아 통신을 인용,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대표단이 이달 21일 연해주에서 빅토르 고르차코프 의회 의장을 만나 나진에 수산물과 목재 가공공장의 합작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힘.

- **스웨덴, 北 억류 미국인 영사방문 추진(11/22,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85) 씨의 영사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스웨덴 외교부 관계자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뉴먼 씨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다며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뉴먼 씨에 대한 영사방문을 북한 당국에 신청 중이라고 밝힘.

- **北 노동신문 “美 아시아전략이 지역 평화 위협”(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평화와 안전보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전략을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북 억류 미 관광객, 개성공단 등 일반 관광지 여행(종합)(11/22, 뉴욕타임스(NYT))**
 - 지난달 26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85)이 개성공단과 원산 같은 일반 관광지를 여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뉴먼은 함께 북한을 찾은 친구 밥 함들라와 함께 이들 두 지역 외에 남포 등지도 둘러봄.

- **中 국유기업, 북한 경제특구개발 투자서 발빠(11/22,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 중국 대형 국유기업 자오상(招商)그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합의한 공동개발특구 투자계획을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함.
 - 중국과 북한은 2011년 북한 북동부의 나선 경제특구와 북서부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황금평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

- **北 “마약범죄 온상은 美…흑색선전 말라”(1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2일 서방 언론이 북한을 주요 마약 공급지로 지목한 데 대해 ‘흑색선전’이자 ‘정치모략극’이라며 국제 마약 범죄의 온상은 미국이라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요즘 서방의 어용 보도수단 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마약 범죄의 주요 원천지라는 황당무계한 꾀변을 유포시키고 있다”며 그 ‘출처’로 미국과 남한을 꼽음.

- **北 평양과기대 학생 7명, 영국·스웨덴 유학(1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남북한 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생 7명이 영국과 스웨덴에서 유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RFA는 평양과기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 학교 대학원생 3명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전자·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국제금융·경영학)과 스웨덴 읍살라 대학(농업생명과학)에도 각각 2명이 유학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언론,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에 높은 관심(11/23, 연합뉴스; 중국신문사)**
 - 중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건설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의 경제특구 개발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을 소개하며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 신호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힘.

- **北, 국제장애인올림픽위 정회원 자격 얻어(11/24, 연합뉴스)**
 - 체육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북한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정식 회원이 됐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IPC는 24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 칠레, 세이셸 등 7개 새 회원을 승인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이집트 ‘2013-2015년도 문화협조 집행계획서’, 11.18 평양에서 체결(11.18,중통·중방)
- 김영남, 11.20 駐北 불가리아 대사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20,중통·중방)

- '불가리아 사진전시회'(北 대외문화연락위와 駐北 불가리아대사관, 北-불가리아친선협회 명의), 11.20 외교관계 설정 65돌 즈음 평양대외문화교류소에서 개막(11.20,중통·중방)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1.20)】 유엔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해마다 불리는 인권결의 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11.20,중통)
- 【중통사 논평】 일본이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지원중단 결정 관련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의식과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찬자들의 비열하고 유치한 망동'이라며 '배움의 권리 보장' 촉구(11.20,중통/학생들을 정치적 인질로 삼는 후안무치한 범죄국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美, 전제조건 내세운 대화 타령 말아야”(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신문은 이날 ‘그 무슨 불가침조약체결론의 허황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 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 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짓는 개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함.
- **中, 6자회담 7개항 조정안 제시…北 사전조치는 제외(11/22, 요미우리(讀賣)신문)**
 -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2008년 12월 중단된 회담 재개를 위한 7개항의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함.
 - 신문은 회담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함.
 - 조정안은 ▲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 ‘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 6개국 협의 정례화로 구성됨.
- **美 “北 핵포기 징후없는 6자회담 복귀에 관심 없다”(11/2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

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을 방문중인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 뒤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북한의 핵폐기)이 6자회담과 6자회담 프로세스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北, 南이 대화 자격 갖춰야 대화 나설 것”(11/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남측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 때까지 북측은 그 어떤 긍정적인 호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신보는 이날 ‘버림받은 불신정권’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청와대 안방주인과 그 측근들이 북이 취하고 있는 대남 강경자세가 일시적인 전술이며 시간이 흐르면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대남기구, 반정부 투쟁 호소…“유신부활 막자”(11/20,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0일 남한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남한 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국전선 중앙위는 이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민주 및 통일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남조선의 각 계층은 ‘유신’ 독재부활을 결사배격하고 민주화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선동함.
- 北 조평통, 朴대통령 시정연설 비난…“여론 기만극”(11/21,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여론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시정연설 내용은 한마디로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 북남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회피와 위기 모면을 위한 여론 기만극으로서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근로단체 “南 각계 반정부투쟁 나서야” 선동(11/22, 연합뉴스)

- 북한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은 민주노총이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정부 투쟁을 결의한 것을 지지하며 남한 각계가 이에 동참할 것을 선동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직맹 중앙위원회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 기세에 적극 연대·연합해 낡고 부패한 파쇼독재 정치를 갈아엎고 인민의 새 정치를 안아오기 위한 정의로운 항쟁의 거리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고 밝힘.

● 北, 류길재 장관 발언 비난…“대결 망언”(1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 시대에 맞는 통일 개념’을 강조한 데 대해 ‘대결 망언’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겨레의 지향을 모독하는 대결 망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류 장관을 ‘역도’로 지칭하며 “그가 떠벌린 ‘시대’란 다름 아닌 6·15 통일 시대가 아닌 대결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함.

● 北단체 잇달아 남한 내 반정부 투쟁 선동(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학생단체인 조선학생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의 청년학생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학생위는 “남조선에 악명 높은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게 되면 청년학생의 소중한 꿈과 앞날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함.

● 北, 황해도 강령군서 연평도 포격 3년 기념모임(11/2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3년을 맞아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기념모임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전함.

- 모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담당하는 4군단장인 리성국과 박영호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정룡 황해남도 인민위원장과 군 장병, 강령군 주민들이 참석함.
- 리성국 4군단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 정부를 향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수치스런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조평통,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南 참여’ 비난(11/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사실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이 “이번에 또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서 ‘북인권 결의안’ 조작에 앞장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결의안이 강압 ‘통과’되자 남 먼저 ‘환영’이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을 쳐댔다”고 밝힘.
- 이어 “괴뢰패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며 한국 정보기관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10월 남북교역량 전년比 80%…개성공단 완만한 회복(11/24, 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된 지난달 남북교역량이 예년의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24일 통일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남북 교역량은 1억 5천 215만 달러 규모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억 8천 813만 달러의 80.9%에 해당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통일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동족간의 신뢰와 화합이 아니라 대결을 국책으로 삼는 추악한 정체, 우리(北)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공식 선포’라고 연일 비난 공세(11.19,중통)
- ‘남한에서 유신독재가 되살아나는 속에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소동이 일고 있다’며 이는 ‘통치위기 탈피, 장기집권 야망실현 기도’라고 “전민항쟁에 대중적 궤기” 선동(11.19,중통-노동신문/유신독재 부

- 활에 대중적 항쟁으로 맞서야 한다)
- 【「조국전선」 중앙위 호소문(11.20)】 우리 정부가 '통진당,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전공노 등 민주 및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보수·유신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 한다'며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 투쟁' 선동(11.20,중통)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2호(11.21)】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 북남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여론기만극”이라며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 실명 비난(11.21,중통·중방)
 - 또다시 우리(北)를 걸고 도발적인 궤변(도발, 핵문제, 원칙 등)을 언급한 것은 그의 대결적 체질과 사고의 빈곤, 무지와 무식만을 드러낸 것임.
 - 대통령의 ‘서울안보대화’에 보낸 메시지(북핵 불용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려反攻국가 공조를 실현해보려는 너절한 추태로서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11.21,중통·민주조선)
 - 【「조평통」 대변인 중동기자 문답(11.21)】 탈북자 15명 中 공안에 체포(중국 군인) 관련 ‘南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로 용납 못할 反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유관국들에 ‘탈북자 송환’ 촉구(11.21,중통)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병진노선 불가능, 북핵 포기’ 등은 “집권 쏠 기간 끝까지 동족과 대결하려는 흉심의 발로”라며 ‘우리(北)를 무장해제 시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목적’이라고 주장(11.21, 중통/외세의 핵전쟁 하수인의 흉심)

11.25-11.30

11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일성-호찌민 상봉 사진 유치원에 안치(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 호찌민 국가주석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평양 경상유치원에 안치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경상유치원 ‘호찌민반’에서 진행된 안치식에는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북-베트남 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레 쿠앙 바 주북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해 사진에 현화함.

- 北 김정은, 평양건축대 시찰…건축인재 양성 강조(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고 유능한 건축인재 양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학교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등을 둘러보고 “평양건축종합대학은 건축인재 양성의 거점”이라며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함.
 - 더하여 그는 “교육과 생산노동,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며 수재(영재)교육과 박사원(대학원)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정보화·현대화·첨단화를 실현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백두산지구 체육촌 방문(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비롯해 양강도 삼지연군(郡)의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백두산지구 체육촌의 실내하키장과 야외스케이트장, 스키슬로프 등을 둘러보고 “나라의 중요한 겨울철 체육기지인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현대적으로 개진(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체육촌 개진을 당에서 직접 밀어주겠다”며 “체육촌에 일반대중 봉사시설로서의 산악스키주로(슬로프)를 더 잘 만들어주고 인공 잔디를 깐 축구장도 마련해주라”고 지시함.

● 北, 양강도당 책임비서에 리상원 임명(11/3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행정구역상 백두산 일대를 포괄하고 있는 북한의 양강도 당 책임비서가 김희택에서 리상원으로 교체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현지에서 김 제1위원장을 영접한 양강도 당 책임비서를 리상원으로 소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

■ 기타 (대내 정치)

- 노동당의 선군사상 독창성은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 역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떠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이론을 밝힌데 있다”고 강조(11.24,중통·평방·노동신문/우리 당의 선군사상이 밝힌 혁명이론의 독창성)
- 노동당의 선군혁명사상의 정치이론 독창성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신 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정치 실현을 담보하는 사상 정신적 요인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해명하는데 있다”고 해설(11.28,중통·노동신문/우리 당의 선군혁명 사상이 밝힌 정치이론의 독창성)
- 김정은 저작 발표(‘12.12.1) 1주년 기념 사회과학부문토론회, 11.28 진행 및 사회과학·교육·혁명사적·민족유산보호·출판보도부문 일꾼 등 참가(11.28,중통·중방)
 - 김정은 저작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감일상-김정일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나. 경제

● 北 국제전람사 사장 “기업소 무역자율 권한 확대”(12/1,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기업소의 상품 수출 권한을 확대해 대외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국제전람사의 박응식 사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2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여러 단위에 무역의 폭을 넓히도록 권한을 주고 생산 단위들에서 수출기지를 잘 꾸려놓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北, 올해 경제분야 성과 부각 선전 강화】
 - 올해 평양시내(중구역·모란봉구역 등)의 “수십만 평방미터 도로를 포장(피치·콘크리트)” 등 ‘도로 정비·개건성과’ 선전(11.28,평방)
 - 전국적으로 “다시마 모내기 실적 70% 개선” 등 각지 수산부문 일꾼들의 ‘바다나물 증산 준비성과’ 보도(11.28,중방·노동신문)

다. 군사

● 北 항공절 맞아 ‘공군’ 띄우기(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두 번째 ‘항공절’을 맞아 공중을 책임지는 항공 및 반항공군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띄우는 내용을 보도함.
- 신문은 2면에 게재한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며’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군 무력을 발전시킨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함.
- 더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여러 차례나 항공 및 반항공군을 찾아 격려했다며 “원수님(김정은)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 비행사(조종사)들이 영원히 김정은 결사옹위의 항로를 따라 위훈을 수놓을 수 있게 하는 근본 원천”이라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北, 지방 잔디연구소 건설…“풍토 맞는 품종 개발”(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6월 평양에 잔디연구센터를 새로 만든 데 이어 최근 동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에 각각 잔디연구소를 건설하는 등 ‘잔디 심기’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함경북도와 황해남도의 일꾼(간부)과 근로자들이 잔디연구소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다”고 25일 보도함.
- 신문은 이어 함경북도에서는 올해 안에 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충돌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해주 잔디연구소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전함.

● 北, 과학기술혁신운동 독려…“모범칭호 받자”(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1면에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신문은 이 운동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칭호쟁취운동’을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라

고 설명하며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이 운동을 진행하고 당의 지도에 따라 추천과 판정, 심의, 평가사업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우표 발행(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개성 일대의 유적과 유물들의 사진을 담은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이번에 발행된 우표는 고려 성군관 대성전과 개성 남대문, 공민왕릉, 선죽교의 모습을 담은 묶음우표 4종과 두만강 물고기 화석 등 북한에서 발굴된 화석들을 담은 개별우표 3종으로 구성됨.

- **北방송 “마식령 스키장, 리프트 공사 한창”(11/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에서 현재 리프트 공사가 한창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중앙방송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에서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스키장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지대정리와 원림 형성이 진행되는 속에 스키장 운영을 위한 삭도(리프트)와 눈포시설(눈을 만들어 뿌리는 장비) 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北 농장서 인센티브…1인당 65kg 추가배급(11/29, 연합뉴스)**
 - 올해 가을 북한의 작황을 조사한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단이 북한 협동농장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WFP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년 북한 작황보고서’에서 “다수의 농장이 하위조직들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생산량이 계획을 초과하면 최대 3개월치 식량이 추가로 지급돼 1인당 65kg을 더 받는다”고 소개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신문 “美 ‘핵무기없는 세계’ 구호는 기만”(1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하루만인 25일 미국의 세계 비핵화 노력을 ‘기만’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기만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만이 남아있는 세계이며 그것은 핵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망상 속에 떠올린 나발”이라고 밝힘.
 - 또한 “여러 핵보유국들의 출현으로 미국의 핵독점은 이미 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은 “여러 핵대국들의 핵무력 강화를 저지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해 기어코 세계 제패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캐나다 NGO, 北에 콩우유 재료 100t 지원(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퍼스트스텝스가 이달 중 북한 고아원 어린이를 위해 콩 100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수잔 리치 퍼스트스텝스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3명이 지난달 강원도 원산과 남포시 등 지역을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공급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달 중에 콩우유 재료로 사용될 콩을 북한에 보낸다고 밝힘.
- **올들어 러시아 파견 北 숙련노동자 크게 늘어(1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숙련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 당국을 인용해 올해 1~9월 자격증 등을 갖춘 북한 숙련 노동자가 러시아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762건이었다고 전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함.

- **스위스 NGO, 태양열 물가열기 대북지원(11/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의 대북지원단체 아가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고아원 어린이를 위한 태양열 물가열기를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아가페인터내셔널 측은 방북 기간 태양열 물가열기를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평양의 기술자와 함께 함흥에 있는 고아원에 물가열기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왔다고 밝힘.

- **北, 김일성 베트남 방문 55년 맞아 친선관계 부각(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김일성 주석의 베트남 방문 55주년을 맞아 베트남과 친선관계를 강조함.
 - 신문은 ‘조선과 월남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주석이 1958년 11월 28일 호찌민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사실을 상세히 소개함.
 - 신문은 김 주석이 당시 특별비행기를 타고 하노이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베트남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김 주석과 호찌민 주석이 바딩광장에서 나란히 한 군중연설 내용도 전함.

- **北방송, 中 센카쿠 포함 방공식별구역 설정 ‘두둔’(11/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8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보도함.
 - 방송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의 부당한 입장을 단호히 배격했다”라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일본은 “이러쿵 저러쿵할 권리가 없다”라는 중국측의 입장을 소개함.

- **북·중·러 두만강 하구 관광 협력사업 추진(11/29, 연합뉴스)**
 - 북한 나선특별시 관계자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지린성 훈춘시, 러시아 연해주 관계자와 2차례 회의를 갖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코스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고 29일 연변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국경을 맞댄 이들 지방정부 관계자는 육로와 바닷길을 이용해 3국을 연결하는 육·해 환형(環形) 관광코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박 운송과 운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관련 벌금 일부 납부키로(11/29, AFP 통신)

- 북한이 불법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부과한 벌금 100만 달러 가운데 67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청천강호 선원 변호인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해당 벌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현지의 관리들과 합의함.

● 北, 억류 미국인 뉴먼 사죄문 공개…“죄과 인정”(종합2보)(1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억류중인 미국인 메릴 뉴먼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사죄문 전문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함.
- 조선중앙통신은 발표한 보도에서 “최근 우리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관광객으로 들어와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 공민 메릴 에드워드 뉴먼을 단속, 억류했다”며 “그의 대조선 적대행위는 여러 증거물에 의해 입증됐고, 그는 자기의 모든 죄과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美의 부당한 전제조건 용납 않을 것”(종합)(11/26, 연합뉴스)

- 북한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방한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고 25일에는 일본에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기타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1.26)】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북의 태도 변화 없이는 6자회담 재개 어렵다, 對北압박 강화할 것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부당한 전제조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11.26, 중통 중방)
-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적대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을 무단히 강화할 것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여성근로단체도 “南여성, 반정부투쟁 나서야” 선동(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여성 근로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는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담화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악명높은 ‘유신’의 명령이 되살아나 판을 치고 있다”라며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 남조선 여성들도 정의와 민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과거에) 남조선 여성들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기에 결국 서슬푸르던 ‘유신’ 파쇼독재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라며 “‘유신’ 독재가 또다시 되살아나면 가정의 단란한 행복도, 자식들의 미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南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비난(1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남한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비난하며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인권문제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한으로 가려던 탈북자 13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

明)에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정보원이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유인납치’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신문 “새누리당 ‘北 투쟁지령’ 주장은 궤변”(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북한의 대남투쟁 지령”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자 “북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급소를 찢린 자들의 비명’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에서 고조되는 반정부 투쟁은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른 최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저들 때문에 빚어진 최악의 정치혼란과 통치위기를 마치 우리 때문에 조성된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최근 호소문을 통해 ‘남조선 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민주화와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동족으로서 외면할 수 없기에 응당 할 말을 하는 것”이라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떠나 북남관계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장웅 “남북협력 차질…北태권도 올림픽 참가 난항”(11/27, 미국의소리 (VOA))

-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태도 변화로 북한 태권도 선수의 올림픽 참가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장 위원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과 WTF가 북한 태권도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에 구두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WTF가 작성한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고 VOA에 밝힘.

● 北조평통 “중북은 위기 처한 南의 상투적 수법”(11/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발언을 둘러싼 ‘중북’ 논란에 대해 “위기에 처할

- 때마다 종북을 만병통치약처럼 써먹는 것은 괴뢰역적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저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 고 종교단체까지 종북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종북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치적 탄압을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준다”라고 지적함.

● **남북,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 내주 시작(종합)(11/29, 연합뉴스)**

- 남북은 29일 개성공단의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 (RFID) 공사를 다음 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RFID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3호(11.24)】 우리 정부의 ‘공동체안국’ 참여로 유엔의 ‘北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反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1.24, 중통·중방)
- 北 「여맹」 대변인 담화(11.25), 現 남한 정치를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며 ‘남한 여성들의 괴뢰패당의 강권과 폭정에 맞서反정부 투쟁 적극 동참’ 선동(11.25, 중통·중방·평방)
 - 現 정권에 대해 “유신 독재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1인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폭압에 매달리고 있다”고 선동 지속(11.25, 중통·노동신문/파쇼폭압은 자멸의 길이다)
- 南北이 준수 이행해야 할 근본원칙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사대매국노들을 단호히 제거해 버릴 것’을 주장(11.26, 중통·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이념)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4호(11.28), 대통령·새누리당·언론 등 박창신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北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발언 비판에 대해 “종북몰이 광란”이라고 왜곡 주장 및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천명(11.28, 중통·평방)
- 통일부 대변인 성명(11.22, 北의 대남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 등 유감)에 대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괴뢰들은 유감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책임 전가 비난(11.28, 평방/대결상태를 격화시키는 도발적 망동)
 - 대통령 시정연설 지속 거론 및 ‘경제문제는 자화자찬,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답변 회피, 對北 관련 발언은 北을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 선동(11.28, 평방/조롱거리로 된 시정연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01-12.08

12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소설계, 김정은 우상화 작품 창작 나서(12/1, 연합뉴스; 문학신문)
 -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상화에 힘쓰는 북한이 소설로 범위를 넓혔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11월 16일자)은 “올해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품모를 형상한 소설 작품이 창작돼 경제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밝힘.
 - ‘우리의 계승’은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았고 ‘불의 약속’은 김 제1위원장의 상징으로 알려진 대규모 불꽃놀이 ‘축포야회’를 소재로 한 작품임.

- 北, 김정일 2주기 분위기 띄우기…“유훈 관철하자”(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3면을 김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과 사진을 실음.
 - 신문은 1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 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끌어 번지고 있다”라고 선전함.
 - 특히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김 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각급 당 조직에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정이 최대한 분출되도록 하라고 독려함.
 - 2면에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장군님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이라는 글과 함께 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을 싣고 12월을 단순한 그리움의 달이 아니라 맹세와 실천의 달로 만들자고 강조함.

- 北 신문 “혁명적 신념서 탈선하면 용서치 않는다”(12/0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제기된 다음날인 4일 “혁명적 신념에서 탈선하면 누구든 용서치 않는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혁명은 곧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라는 것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간곡한 유훈”이라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정을 주장함.
- 더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영원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일편단심의 그 한길로만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민들 모두의 혁명적 신념을 억년 드놀지(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초석”이라고 덧붙임.

● 北, 김정은에 충성 독려…“인민·수령은 혼연일체”(12/0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남한 정보당국이 장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제기한 지 이틀째인 5일 ‘창성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창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면서 선대의 전통을 계승해 이곳에 애착을 보이는 김 제1위원장의 ‘충정’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창성을 직접 찾아 새로 리모델링한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는 선대의 유훈을 꽃피우기 위한 그의 충정과 헌신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 더하여 김 제1위원장이 당시 창성과 선대의 인연을 회고하면서 “아버이 수령님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창성의 길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역사에 대하여 깊이깊이 새겨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함.

● 北 박봉주·최룡해, 건설강습 참가자 숙소 방문(종합)(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박봉주 총리가 창립 61주년을 맞은 국가과학원을 찾아 과학전시관을 돌아보고 새 기술과 제품 개발에 노력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함.
- 박 총리는 이어 현지에서 ‘일꾼협의회’를 열고 은정과학지구를 정보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공학 등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보급기지로 잘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함.

- **北, 주이집트 대사에 박춘일 임명(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집트 주재 대사에 박춘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건설사업 책임자 총집결…“건설 최번영기 열자”(12/8, 연합뉴스)**
 - 북한이 8일 개막하는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주요 건설사업 책임자들이 총집결하는 행사인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은 ‘주체 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1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에서 올해 건설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사업의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北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도 ‘장성택 기사’ 삭제(12/8, 연합뉴스)**
 - 북한이 실각설이 제기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한 데 이어 관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없앤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이날 오후 중앙통신 웹사이트 검색창에 ‘장성택’을 입력한 결과 과거 기사는 나오지 않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이라는 문구만 떴으며 그의 측근으로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룡하’와 ‘장길수’를 입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 **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종합)(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쪼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힘.

김정은동향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라오스 국가주석('쫘말리 싸이나쑤')에게 '라오스 창건 38주년' 축전(12.1, 중통·중방)
 - 박봉주 내각 총리·박의춘 외무상도 12.1 라오스 수상(통생 탐마왕)과 부수상겸 외무상(통론 씨수릿)에게 각각 축전(12.1, 중통·중방)
- 12/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 등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5, 중방)
- 12/8, 김정은 黨 제1비서, 모범선동원들에게 '감사' 전달(12.8, 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사망(12.17) 2주기 즈음 초민의 '김정은 영도 따라 김정일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실현하자'고 강조(12.1, 중방·중통·노동신문·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 김정은 저작 발표('12.12.1) 1주년 관련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세계적인 강국, 사회주의 선진문명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12.1, 중통·노동신문·중방/주체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
 - 김정은 저작 :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김일성-김정일의 조국관·혁명관·인민관은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하다'고 칭송하며 '인민의 행복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새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원수님(김정은)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12.2, 중통·노동신문·중방/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 박봉주 내각 총리, 국가과학원사업 현지 요해 및 과학자 - 기술자들 격려와 관계부문일꾼 협의회 개최(12.7, 중통·중방)
- 박봉주·최룡해·김기남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12.7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7, 중통·중방)
 -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12.7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 및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 참관(12.7,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국제전람사 사장 “기업소 무역자율 권한 확대”(12/1,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기업소의 상품 수출 권한을 확대해 대외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국제전람사의 박응식 사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2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여러 단위에 무역의 폭을 넓히도록 권한을 주고 생산 단위들에서 수출기지를 잘 꾸려놓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

- **北총리, 자강도 강계시 경제현장 찾아 협의회 주재(12/0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자강도 행정중심지인 강계시의 여러 경제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간부들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박 총리는 강계포도술공장, 강계돼지공장, 홍주닭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등을 찾아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문 간부 협의회를 주재했으며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올바른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 “각지에서 연간 생산계획 초과 완수” 연일 선전(12/0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강선금속압연공장 노동계급이 12월 1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는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연간 시멘트생산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했다”는 소식을 전함.
 - 앞서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원산제염소에서 연간계획을 완수했다”라며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날씨에서도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고 소개함.

다. 사회문화

- **北 예술학교 ‘꼬마 전자악단’ 국제공연서 ‘인기’(12/02,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홍보용 잡지 ‘금수강산’ 12월호에서 ‘재청 받은 어린 연주자들’이라는 글을 실고 평양 금성학원 전자악단이 국제 음악행사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소개한 것을 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이 잡지는 이 전자악단의 나이 어린 연주자들이 올해 5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벚들을 맞이한다’에 참가해 수준 높은 노래와 연주로 앙코르 요청을 받았다고 자랑함.

- **北에서도 ‘김밥 대중화’…유명식당서도 인기메뉴(12/0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더욱 대중화되는 김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예전엔) 별식처럼 해먹던 김밥을 최근 평양의 능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 문수물놀이장의 청량음료점들과 각지 간이 매대에서 특색 있게 만들어 내놓아 인민

들을 기쁘게 한다”고 전함.

- 이어 “각 도 봉사기관(식당)들과 곳곳에 설치된 야외 매대들에서도 김밥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간이음식으로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특히 평양 모란각 같은 유명 식당에서도 김밥이 인기있는 메뉴가 됐다고 소개함.

● 北 “전문가 되자”...석·박사 학위 따기 붐(12/0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민주조선 11월 22일자는 김일성종합대 계응상농업대학 국토건설학부의 교원과 연구사 전원이 학위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북한에서 학위가 개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증표로 떠오르면서 이를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민주조선은 “당의 과학기술중시 사상을 높이 받든” 사색과 탐구의 산물이자 “높은 실력으로 당의 후대(後代)교육 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노력의 열매라고 평가함.

● ‘체육강국’ 꿈꾸는 北...“목표는 올림픽 15위권”(12/0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월간 ‘조국’ 12월호는 ‘새로운 전성기를 펼친 조선의 체육’이란 글에서 한 체육관계자를 인용해 “체육강국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체육 종목들의 기술이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획득 수를 세계 10~15위권 내에 속할 수 있는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밝힘.
- 이 잡지는 올림픽에서 200여개의 국가가 25~30여개 종목에서 300여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데, 통상 40~50여 개 국가가 금메달을 휩쓸어 가므로 금메달 10개만 획득하면 종합 순위 10~15위권에 들어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당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설명함.

● 北 ‘장애자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12/06, 조선신보)

- 북한이 장애인 복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달 21일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보도함.
- 북한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정현 부장은 법 개정이 “사회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자보호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조선신보에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해상운수 발전 노력”(12/02, 조선중앙통신)**
 -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장은 연설에서 북한이 해상운수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해상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월 15일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힘.
 - 북한 단장은 해상탐색구조 분야와 관련해 동·서해안 25개 지역에 초단파연안 무선대를 설치,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해상환경의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北, 美 ‘비핵화 구호’ 또 비난…“행동으로 보여라”(12/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호를 비난하며 핵 군축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함.
 - 신문은 ‘미국의 비핵세계 구상의 기만성은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에서 “핵무기를 세계지배 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비핵세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함.

- **北 통신 “日 정치인 여성인권 논할 자격 없다”(12/0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군국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수치스럽지도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성 인권을 강조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극우익으로 질주하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의 영상(이미지) 올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과거청산 없이 군국화로 질주하기 위한 내외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1~10월 대중국 무역, 작년보다 6.2% 늘어(12/04,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북한의 중국을 통한 각종 물품 조달이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해관(세관)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은 중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23억 6천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4%가량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들어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北 통신 “美, ‘北 위협’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초래”(12/0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며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P-8A 포세이돈’ 첨단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동북아에서 ‘무력증강 책동’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이유로 ‘북조선 위협설’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변으로서의 정체를 가리고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 관광 고위 대표단, 대만 방문(12/0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위 관리들이 내주 대만을 찾아 관광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만중앙통신(CNA)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CNA는 조성규 북한 국가관광총국 부국장 겸 조선국제여행사 사장과 관리 2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이달 9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항공편을 통해 타이베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하며 이번 방문의 표면적인 목적은 이달 11~15일 카오슝(高雄)에서 열리는 ‘2013 아시아 관광 회의’ 참석이라고 밝힘.

- **美 재무부, 北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12/06, 미국의소리(VOA))**
 - 미국 재무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FinCEN은 지난 5일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목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결함 국가와 관련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북한과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힘.

- **北 김영남 “남아공 정부와 인민에 애도”(12/6,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일 벨스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타계한 데 대해 “남아공 정부와 인민, 고인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을 “남아프리카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이라고 칭하며 이같이 말함.

- **크리스마스 북한관광…판매부진에 취소(12/6, 텔레그래프)**
 -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외국인 대상 관광 일정이 취소됐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광상품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동여행사는 오는 24일부터 5일간 북한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크리스마스 관광을 추진했지만, 상품 판매가 부진해 취소함.

- **中, WFP 통해 100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12/7,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지난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중국의 식량지원 소식을 밝혔으며 WFP는 북한에 있는 취약계층 239만 3천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이 자금을 쓸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 국제 사모펀드와 희토류 개발(1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인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 사모펀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국제 사모펀드인 'SRE 미네랄스'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희토류를 개발하려고 북한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최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北, 억류 미국인 메릴 뉴먼 42일 만에 추방(종합2보)(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추방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뉴먼 씨는 북한에서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된 지 40여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뉴먼 씨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했다며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심심하게 누우친 점과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발표함.

● 北 신문 “美핵무기 철수가 한반도 평화 선결조건”(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세계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은 자그마한 남조선 땅을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이것도 모자라 대량살육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북침을 목표로 ‘핵전쟁연습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대표단 단장, 11.26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8차 회의에서 ‘우리(北)는 앞으로 기구 성원국들과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항해 안전과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 표명(12.1,중방·중통)
- 北 - 中 공동미술전시회(만수대창작사-동방문화예술원 공동주최, 北 - 中 친선 주제 미술작품 등), 11.30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12.1,중방·중통)
- 중국 상무부·문화부, 11.29 ‘북-중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주년 연회 개최(12.1,평방·중통)

- 北,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은 저들의 핵우위에 의한 세계제패야망 실현책동을 감추기 위한 병풍에 불과하며, 핵군축타령은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난 및 '핵군축에 대한 실지 행동'을 촉구(12.2,중통·노동신문/미국의 비핵세계구상의 기만성은 드러났다)
- 【중통 논평】 日 당국자의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한 발언(여성들에 대한 폭행 근절, 여성인권 보호) 관련 "철면피성을 또다시 드러낸 언동"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하려면 일본군 성노예범죄부터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12.3,중통/수치스럽지도 않은가) · 美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소년상' 건립 관련해 日 의원의 '항의' 움직임에 대해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망동으로 인간이기를 그만둔 아만의 무리들'이라고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12.3,중통·민주조선/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망동)
- 「중통 논평」 미국의 '亞-태지역 중시 및 무력증강 계획(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도입 검토 등)'과 동시에 '북 위협설' 주장은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화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2.4,중통/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도발책동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 강화”(12/0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핵 선제공격'을 기도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 신문은 '핵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민족수호의 보검'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등을 언급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 타격 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다"고 비난함.
- 이어 북한의 '핵 억제력'은 흥정물이 아니라고 못박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韓美가 "핵 선제 타격도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핵 억제력 강화' 지속 강조(12.3,중통·노동신문/핵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민족수호의 보검)
- 조선의 핵은 지구상에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 통일조선의 국보임.

3 대남 동향

- **北 농민단체 “南농민, 파쇼통치 끝장내야” 선동(12/1, 조선중앙통신)**
 - 농민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쌀개방 반대’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힘.
 - 농근맹은 특히 “남조선 농민들은 반파쇼 민주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각계각층과 굳게 어깨결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 가증스러운 파쇼통치를 끝장내고 땅의 주인된 농민의 세상, 민주주의 새 사회, 자주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 신문, 제정 65주년 국보법 철폐 주장(12/0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제정 65주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세력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보법이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고 소개하고 “보안법 철폐는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남조선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힘.

- **北종교단체도 南 반정부투쟁 선동…“성전에 나서라”(12/02, 연합뉴스)**
 -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이 박근혜 정부를 ‘사탄의 무리’라고 규정하며 국내 기독교계에 “성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그련 중앙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온 남조선을 파쇼의 난무장으로 만들고 동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며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사탄의 무리들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문예단체도 南 반정부투쟁 선동(12/03, 연합뉴스)

- 북한의 문예단체인 조선문화예술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회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집권세력이 '유신독재 부활'에 나서 반대세력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오늘 남조선의 처절한 현실은 문예인들이 진리를 밝히는 횃불, 정의의 기수가 돼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문예총은 이어 "남조선의 문예인들은 시대의 앞장에서 정의의 선도자가 돼 괴뢰보수 집권세력의 극악한 중북몰이 소동을 유신독재 부활 저지, 파쇼통치 심판, 동족대결 반대 투쟁으로 과감히 짓부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南 훈련병 반북 구호 비난…“특대형 도발”(12/04, 연합뉴스)

- 북한이 남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가 훈련병들에게 반북 구호를 외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한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들며 입에 담지 못할 극악무도한 구호를 외치게 하는 도발 광대극을 벌여놓았다"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특대형 도발로서 천추에 용납 못 할 범죄적 망동"이라고 밝힘.

● 北 “대남 선동 ‘내정간섭’ 아냐…계속할 것”(12/0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괴뢰들의 내정간섭 궤변은 중북 소동을 정당화하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운을 거세해 보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이어 "우리는 괴뢰 패당이 우리를 걸고 중북 광란을 일으키며 정의와 민주를 위한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탄압하는 데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족으로서 남녘 동포들의 투쟁에 계속 지지·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南 교과서 수정명령 비난…“동족대결 부추겨”(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교육을 관장하는 내각 산하 교육위원회는 6일 교육부가 최근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수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남한 청소년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려는 교과서 ‘개악’ 시도라고 밝힘.
- 교육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남조선의 청소년들에게 반공화국(북한) 적대감과 반동적 역사관을 주입해 남조선 사회를 더욱 보수화, 파쇼화하고 유신독재를 기어이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패당의 흥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농근맹」 대변인 담화(12.1), ‘2013 전국농민대회(11.22 서울, 韓·中FTA 반대 등) 개최 등 관련 ‘남조선 농민들은 반파쇼민주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파쇼통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반정부 투쟁’ 선동(12.1, 중통·중방·평방)
- 현재 “남조선에서는 유신명령이 되살아나 살판치고 있다”며 ‘「전교조」 문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지속 거론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1, 평방/살판치는 현대판 유신독재)
-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시국미사’는 “괴뢰정권 타도 투쟁에 종교계도 적극 합세, 4.19인민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선동 지속(12.1, 평방/날로 확대되고 있는 정권퇴진 투쟁·통치위기 수습을 노린 파쇼광대극)
- 【北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2.2)】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수사 등 관련 ‘진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와 중세기적인 중북몰이 광기를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한다’며 ‘사탄을 몰아내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평방)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총 대변인 담화(12.3)】 南 집권세력이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중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문예인들이 정의의 기수가 되어 민주·통일을 위한 선봉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南 문예인들의 ‘반정부 투쟁’ 선동(12.3, 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중통’ 대답(12.4), 남한 훈련병들(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 ‘2013년 14기 수료식’)의 구호(3대 세습 추종하는 중북 쓰레기 몰아내자) 제창은 “최고준엄 모독, 특대형 도발”이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위협(12.4, 중통·평방)
- 韓美의 ‘北 미사일 위협’ 공동전략 수립(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과 연합사단 창설방안 검토, 남한 국방력 강화 등 재차 거론하며 ‘北, 핵억제력 강화발전 및 병진노선 정당성’ 및 ‘북핵 강화’ 주장(12.4, 평방/북침을 노린 군사적 결탁)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5호(12.5)】 우리 정부 및 새누리당에서의 對北 발언(대남 반정부 선전·선동 강화 및 내정간섭) 관련 ‘중북소동을 정당화하고 반정부 투쟁기운을 거세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지지 성운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12.5, 중통·중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09-12.15

12월

2주차

1. 대내 동향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 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종합)(12/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힘.
 - 중앙통신은 특히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엮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밝혀 장 부위원장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4~5월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군부의 조치에 반대입장을 밝혀 충돌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뒷받침함.

- 北, 노동신문 1면에 ‘장성택 숙청’ 보도(12/0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실을 크게 보도하며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라는 제목으로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장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전함.
 - 신문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장성택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그 해독성, 반동성이 날날이 폭로되었다”며 장 부위원장이 분파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젖어 부정부패했다는 등 구체적 해임 사유를 열거함.

- 北 김정은, 건설일꾼에 서한…“건설 대변영기 열자”(12/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8일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인민의

- 낙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 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건설 투쟁'을 독려함.
- 더하여 그는 이번 대강습이 "건설 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발기에 따라 마련됐다"라며 건설일꾼과 근로자들을 '장성부흥'의 임무를 띤 "척후대, 개척자"라고 치켜세움.

● **조선신보 “北 주민들 ‘장성택 숙청’ 전폭 지지”(12/09, 조선신보)**

- 북한 주민들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로 규정하고 숙청한 노동당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장성택 숙청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책임있는 위치에 등용됐던 자가 저지른 배신행위는 용납 못할 만고대죄"라며 장성택을 '현대판 종파'로 규정하며 장성택 숙청이 "일심단결의 기운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키는 계기로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함.

● **北 “전기료에 처넣고 싶다”…장성택 비판 여론몰이(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장성택의 해임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소식이 전체 당원과 주민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 신문 4면을 모두 채운 글에는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대학, 지방당 등에 소속된 10여 명이 나와 장성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에 도전했다며 가시돋친 비난을 쏟아냄.

● **北신문 “김정은 중심으로 단결”…유일체제 연일 강조(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돌레)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장성택 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비난하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할 것을 역설함.
- 신문은 장성택의 숙청이 결정된 이번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대

한 의의를 가진다”라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 현대판 종파들이 적발 숙청됨으로써 우리 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되게 됐다”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이어 김정은에도 ‘위대한 영도자’ 호칭(12/1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는 북한 매체가 발행한 사진과 조선중앙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김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지칭한 현수막과 구호가 포착됐으며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사진에서 회의장 정면 벽면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대형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일 ‘금고지기’ 리수용 처형(12/11, 마이니치(毎日)신문)

- 최근 ‘숙청’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리수용 노동당 부부장이 처형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1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리 부부장이 장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처형됐다고 중국 베이징발로 전했으며 장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처형된 인물은 당 행정부 이용하 제1부부장이나 장수길 부부장, 관련 조직의 과장급 2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라고 덧붙임.

● 北김정은 ‘張 숙청’ 후 첫 활동…의료일꾼에 ‘감사’(12/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오전 6시 뉴스에서 김 제1위원장이 사경에 처했던 조선 인민내무군 군인들을 치료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꾼(간부)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함.
- 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들은 지난 4월 강원도의 세포 등판 축산기지를 건설하다가 심하게 다친 인민내무군 군인 6명을 평양으로 후송한 뒤 최근 치료를 마쳤으며 200일이 넘는 입원기간 군인들에게 쓰인 약과 영양제, 보약 등은 헤아릴 수 없다며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함.

- **北, 연일 장성택 비판 여론몰이…“일심단결” 강조(1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장성택의 숙청이 결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접한 반향이라며 김평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당·정·군 간부 4명의 명의로 된 글을 게재함.
 - 김평해 비서는 “현대판 종파이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어든 불순분자들인 장성택 일당이 적발숙청됨으로써 우리 혁명 대오는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천백 배로 다져졌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함.

- **北신문 ‘김정은 결사옹위’ 촉구…“목숨바쳐 사수하자”(1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에도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거듭 강조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독려함.
 - 신문은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라는 제목의 1면 정론에서 ‘장성택 일당’ 숙청으로 ‘혁명의 대오’가 순결해졌다고 하며 “우리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 바쳐 사수하자”, “김정은 결사옹위의 성새를 더 굳건히 다지자”라고 촉구함.

- **北, 김정일 2주기 추모행사 본격 돌입(종합)(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일 동지 서거 2돌에 즈음해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했다”라며 미술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안동춘 문화예술총동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더하여 김정일 위원장 2주기를 맞아 각 근로단체가 잇따라 결의모임을 열고 “김정일 대원수를 영원히 높이 모시며 김정은 원수의 두리(주위)에 뭉쳐 강성국가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힘.

-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종합)(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힘.

- 더하여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함.

● 北 매체, 장성택 사형 집행 대대적 보도(종합)(1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2면에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전날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에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뒤 즉시 집행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판결문에 대해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 우에(위에) 내려진 증오와 격분에 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추”라며 규정함.
- 이어 장성택을 북한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인물로 규정한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의 장면을 담은 사진 두 장도 게재하여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 모습도 밝힘.

● 김정은 내년 생일도 평일…‘김정일 대원수일’ 휴일로(12/1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1월8일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평일’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원수로 추대된 2월14일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평양출판사’ 발간의 ‘주체 103(2014)년’ 달력에는 1월8일이 평일인 검은색으로 표기됐고 올해 달력과 마찬가지로 달력의 어디에도 김 제1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표기나 설명이 없음.

● 北, 중앙통신 상보 통해 김정은 ‘건설 업적’ 부각(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연말을 맞아 13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발표해 올해 건설분야에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부각함.
- 통신은 “2013년 사회주의대건설 전투에 관한 상보”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의해 올해 건설 부문에서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됐다”라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김정은 체제 지칭)의 두 번째 해가 특기할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나게 장식됐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軍 설계연구소 시찰…張 처형 후 첫 활동(종합)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첫 공개활동으로 인민군 설계연구소를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전국요새화 방침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구상을 관철하는 데서 인민군 설계연구소가 맡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자신이 건설부문일꾼대강습이 진행되는 중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선군 조선의 새로운 건설 역사를 창조하지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건설의 대변영기를 위한 투쟁에서 군 설계연구소가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함.

● 北 장성택 처형 정당화 여론몰이…“사형은 민심 대변”(1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3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장성택 사형 보도에 접한 북한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의 반응을 실음.
- 김영배 평양건축종합대학 부총장은 “(장성택에 대한) 사형판결은 민심의 대변”이라며 “배신자의 말로를 보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가슴 후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리효빈 건설건재공업성 국장은 “부귀영달을 위해 (장성택의) 권력에 아부한 자들을 씨도 없이 짓밟개 버려야 한다”고 했으며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대원 김금성은 “장성택을 발전소 건설장에 개처럼 끌고 와 콘크리트 혼합물 속에 처넣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말함.

● 北 “혈육도 서슴없이 징벌”…김정은 유일통치 강조(1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우리는 김정은 동지밖에 모른다’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는 허울을 벗은 종파일당에게 가슴 후련하게 대답했다”며 “우리의 심장이며 행복이며 창창한 앞날인 위대한 김정은 동지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수령을 모르고 감히 도전해 나선다면 실사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해도 서슴없

이 징벌의 충구를 내대는 대쪽 같은 사람, 그것을 곧 혁명으로 알고 혁명가의 본능으로 아는 사람이 진짜 신념의 강자”라고 밝힘.

- **北, 장성택 사형 공개 이틀만에 ‘포상 잔치’(종합)(12/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국의 부강변영’에 기여한 주민과 군인들을 표창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간부와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김정일상’ 등을 수여했다고 보도함.
 - 북한이 밝힌 각종 표창과 명예칭호 수상자는 모두 159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건설부문일꾼대강습 참석자들인 것으로 보임
 - 김정일훈장은 김정관·서재국 군 장성, 노력영웅은 채건 등 16명, 김정일상은 리풍순·박민열에게 수여됨.

- **장성택 처형 속 北 ‘빨치산 혈통’ 김국태 사망(종합)(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이자 최측근이었던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13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밝힘.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명의로 김국태 사망에 관한 부고를 발표, 그가 “급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12월 13일 18시 20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함.
 - 장의위에는 지난 12일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와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포함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시찰…이틀째 공개활동(1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강추위 속에서도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며 연내 완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北 김경희·지재룡 진재한 듯…김정은 이틀째 공개활동(종합)(12/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앞두고 이달 12일과 13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차례로 열린 영화감상회와 재중 항일혁명 투사들의 회고모임에 이재룡 대사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빨치산 혈통’ 김국태 영전에 화환(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3일 숨진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영전에 15일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김국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라고 전함.

김정은동향

- 12/1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들의 ‘사경에 처했던 군인들 완치 소행’에 감사 전달(12.10,중통·중방)
- 12/14,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 현지지도(12.14,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황병서(黨 부부장) 동행
- 12/15,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12.15,중통·중·평방)
 - 황병서, 마원춘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12.8 장성택과 일당에 대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 토의를 열고 ‘장성택의 모든 직무해임과 일체 칭호박탈, 출당 및 제명시킬 데 대해 결정서’ 채택(12.9,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12.8 평양체육관에서 개강(12.9,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보고), 최룡해, 곽범기(黨비서, 개강사) 등 참가
-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며 국민은 ‘김정은 사상·노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 것’ 강조(12.10,중방·평방·노동신문·중통/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나아가자)
 - ‘장성택 숙청, 黨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 관련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등 각계층 인민들의 ‘장성택의 배은망덕한 범죄행위, 양봉음위 종파행위는 최악중의 최악’ 등으로 성토 및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에 충성 결의’ 반향 집중 보도(12.10,중방·평방·중통)
-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12.12 장성택 北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12.13,중통·중방)
 - 특별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음.
- 2013년에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은하과학자거리·미림שמ구락부’ 등을 거론하며 “2013년은 김정은 시

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며 ‘김정은 건설업적’ 칭송(12.12, 중
통·평방·노동신문/김정은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

· ‘조국의 땅위에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며 ‘김정은 시대에 천리마 정신과 1970년대
속도전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21세기 새로운 대비약 속도를 창조한 천만군민의 투쟁열의는 날로 충전
해지고 있다’고 강조(12.12, 중통/위대한 시대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온 강성국가건설의 대진군)

- 【김정일 2주기(12.17) 관련 동향】

· 중앙미술전시회, 12.12 김기남(당중앙위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안동춘(『문예춘』 중앙위 위원장)
참가자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12.12, 중통)

·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결의모임, 12.12 리영수(당중앙위 부장)·김진하(평양시 당위 비서)·노성실
(『여맹』 중앙위 위원장/보고) 참가자 여성회관에서 진행(12.12, 중방·평방)

· 근로단체들의 결의모임과 맹세모임, 12.12 리영수(당중앙위 부장) 참가자 각각 진행(12.12,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2.13)】 김정은은 올 한해 ‘100여차례 걸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18
회) 현지지도 등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었다’며 ‘김정은의 건설영도 및 업적 칭송과 2013년 건설부문
에서 이룩한 성과’ 소개 선전(12.13, 중통)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
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 건설

· 올해 전국 각지 일꾼-근로자들의 ‘△5억9,000여 그루 植樹, △강하천 1,590여km 정리, △도로 1,200
여km 개건 및 100여km 건설, △40여개 대상 제방공사 진행, △강하천 220여개 정리’ 등 “올해 국토관
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선전(12.13, 중통)

· 능라인민유원지·평양민속공원·미림승마구락부·은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손길아래 건설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인민봉사기지’라고 ‘김정은의 애민사상’ 칭송(12.13, 평방/인민을 위해 솟아난 사랑의 창
조물들)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완료 및 폐강식, 12.13 박봉주(내각 총리)·최룡해(軍 총정치국장)·곽범기(黨 비서)
등 참가자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13, 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부문별 실무강습, 12.13 평양에서 진행(12.13, 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12.13 은하과학자거리 참관(12.13, 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생일축하(※김정은, 생일상 전달) 모임, 12.13 곽범기·김인식(내각 부총
리)·김영호(내각 사무장) 등 참가자 4.25여관에서 진행(12.14, 중방)

- 국가표창수여식, 12.14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참가자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14,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軍 장병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에게 표창

· 그밖에 ‘김정일훈장’, ‘세계표창’,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 및 국기훈장’ 등을 200여명에게 수여

- 黨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2.13 ‘김국태’(최고인민회의 대의원, 黨 검열위원장, 89세) 사망에
대한 부고 공동명의로 발표(12.14, 중통)

· 금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12.13, 18:20 사망

· 黨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장의식은 ‘국장’으로 한다며 ‘국가장의위’ 구성(12.14, 중통)

· 김영남(장의위원장),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국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
준, 태종수, 최영림, 현철해, 리병삼, 주규창, 리영수, 백계룡, 한광복, 오일정, 김정민, 김중협, 한광상,
김경욱, 리재일, 최 휘, 김만성, 전일춘, 정명학, 김희택, 백룡천, 홍인범, 리만건, 오수용, 박영호, 박태
덕, 김춘섭, 박정남, 리상원, 강양모, 립경만

· 조객은 12월 15일 10시부터 19시까지 맞으며, 발인은 12월 16일 8시

2 대외 관계

- **北 노동신문, 만델라 생애 소개…“반인종주의 공헌”(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추모식이 열리는 10일 ‘반인종주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한 넬슨 만델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 타계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출생에서부터 인종차별 투쟁 이력과 그 과정에서 겪은 고초, 대통령 당선과 은퇴 후 인도주의 활동까지 두루 다루며 특히 “우리 인민은 남아프리카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인 넬슨 만델라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매우 애석한 마음으로 접하고 있다”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함.
- **중국인 북한관광 급감…“정세 긴장 영향”(12/1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1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북한관광 여행사들은 올해 겨울철 들어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힘.
 - 엔지시의 한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으로 가는 관광수속을 밟아준 고객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며 “예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함.
- **北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아시아국가와 협조가 우선”(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원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지난 9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의 회 회의 제6차총회 연설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운 공화국 정부에 있어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은 더없이 귀중하고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그는 이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끝내려는 북한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특히 “나라의 통일과 평화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앞길에 엄중한 도전이 가로놓여 있지만 우리 인민은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함.

- **獨 자선단체, 내년에도 5만 달러 상당 대북 지원(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국제자선단체 '휴메디카'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1997년부터 매년 북한을 지원한 이 단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황해남도 해주 지역 병원에 5만 달러 상당(약 5천200만원)의 의료용품과 유아식 등을 보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 **러 아무르州, 北 노동자 쿼터 축소 계획(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극동 아무르 주(州)가 내년에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아무르주 현지 일간지를 인용해 보도함.
 - 지난달 12~13일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노동자 교환협정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 아무르주 측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를 내년에는 2천205 건으로 줄일 방침이며 이는 올해의 2천990 건보다 약 26% 작은 규모라고 밝힘.

- **로드먼 19~23일 북한 농구팀 훈련(12/13, 연합뉴스)**
 -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다음 주 북한을 3번째 방문해 오는 19~23일 북한 농구팀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아일랜드 온라인 베테업체 패디파워가 12일(현지시간) 밝혔으며 13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로드먼은 내년 1월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NBA 은퇴선수 주축의 미국 농구팀과 북한 농구팀 간 친선경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힘.

- **유럽연합, 올해 북한에 2억원 규모 지원(1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이 올해 북한에 약 2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지원사무국(ECHO)은 전날 공개한 '대북지원현황'에서 올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13만 3천 유로(약 1억 9천 만원)를 사용했다고 밝힘.

- ECHO는 지난 7~8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 5천 명을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와 민간 구호단체에 대북사업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함.

● **北 중앙통신, 美에 ‘적대시 정책’ 철회 촉구(1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발표한 13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에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함.
- 중앙통신은 북한의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한미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올해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고 있다고 비난함.
- 더하여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에 가해온 각종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등 적대정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떠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

● **北 외무성 리광남 일행, 中 외교부 장쿤성 면담(12/13,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의례국(의전국)장 리광남 일행이 12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장쿤성(張昆生) 부장조리(차관보)를 면담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광남 일행은 장쿤성과 만나기 전 중국 외교부 의전부문과 함께 업무를 협의함.

● **중국 내 북한 무역일꾼 대거 귀국(12/14, 연합뉴스)**

- 14일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거래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랴오닝성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지에 파견한 무역일꾼들이 최근 줄줄이 본국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張 측근 지재룡 주중 北대사 건재…北 공개활동 보도(12/15, 조선방송; 평양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앞두고 이달 13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된 재중 항일혁명 투사와 그 가족들의 회고모임에 지 대사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함.

● **중여행사, 김정은 생일기념 농구경기 관람상품 판매(12/15,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월8일 열릴 농구경기 관람권 12장을 독점확보하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5일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내년 1월 북한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농구경기를 볼 수 있는 상품이 약 1천만원에 판매됨.

● **北 고위관리 “장성택 처형 후 경제정책 변화없어”(종합2보)(12/15, AP통신)**

-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경제개발구 설치 등 기존의 개방적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 고위관리가 발언했다고 15일 AP통신이 전함.
-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운영석 국장은 15일 평양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북한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 관련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韓美공동전략 수립 관련 ‘미국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로 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맹강화를 떠들며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계속 추구한다면 긴장 격화의 장본인으로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12.8,중통·노동신문·평방/선제공격을 피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 【중통 논평】 미국이 우리 군에 ‘공중급유기’(F-15K)와 최신 ‘스텔스기’ (F-35K) 판매에 대해 ‘남북대결을 더욱 부추기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미국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비열한 자들’이라고 비난(12.9,중통·노동신문/평화와 안정을 논할 체면이나 있는가)
- 일본 수상·국회·방위상도 모르는 ‘육상자위대 비밀정보부대 존재·활동(美 육군 지휘, 北·中·러 등 군사 정보 수집) 폭로 및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며 재침의 길을 버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망동”이라고 비난(12.10,중통·노동신문/사무라이 후예들의 분수없는 망동)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北·인도·베트남 등 83개국, 5,000여명 참가), 12.7 예과도르에서 개막(12.10, 중통·평방)
- ‘김완수’ 부의장(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12.9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의회 회의 제6차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2.11,중통)
- 駐北 인도 대사, 12.12 ‘北-인도 외교관계설정’ 40주년 즈음 박의춘(외무상)·박근광(당중앙위 부부장)·박길연(외무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초대下 대동강외교단화관에서 연회 마련(12.12, 중통)

3 대남 동향

- **北 조평통, 南 첨단무기 구매계획 비난…“대결책동”(12/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 정부의 첨단무기 도입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이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 등의 첨단 전쟁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정세를 첨예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張 처형’ 관련 “南의 악담질은 특대형 도발”(12/1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며 김정은 유일체제를 비난하는 세력에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겠다고 위협함.
 - ‘그 어떤 쓸라닥질도 역사의 전진은 멈춰세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내부 불순세력들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겼듯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에 대해 시비질하거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괴뢰보수패당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밝힘.

기타 (대남)

- 대통령의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독재자의 오만무례한 정치깡패행위”라고 비난하며 ‘측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날로 악화되는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12.9,중통·민주조선·측근들을 장관들로 임명한 남조선 집권자의 속심)
-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언(내정간섭, 대남비난공세 등)에 대해 ‘중복소동을 정당화하고 反정부 투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라고 재차 비난하며 ‘괴뢰 패당은 민심의 요구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9,평방/파렴치한 여론기만 책동)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6호(12.12)】 우리 軍의 첨단무기(스텔스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도입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며 “군사적 대결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짓밟게 버릴 것”이라고 위협(12.12,중통·중방)
- 혈세를 탕진하며 전쟁장비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동족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한편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임.
- ‘천안함’ 제19차 공판(12.9, 서울중앙지법)에서 ‘음향탐지수’ 증언(침몰 때까지 아무런 음파도 들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천안함 침몰 당시 어뢰공격이 없었다는 것이 다시금 새로 확인되었다’고 주장(12.12,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16-12.22

12 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연일 공개활동으로 ‘체제 안정’ 과시(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와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 빈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함.
 - 지난 13일 장성택 처형 사실 공개 이후 인민군 설계연구소(북한매체 보도일 기준 14일)와 마식령스키장 건설 현장(15일) 방문에 이어 사흘 연속 현장활동 행보를 하였다고 밝힘.

- **北 김정은, 軍 사업소 방문…사흘째 활발한 현지시찰(종합)(12/16,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이 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가 지난 5월 27일에도 이곳을 방문해 어선 4척을 선물하며 “매고깃배당 해마다 (물고기) 1천t은 잡아야 한다”며 이를 달성할 경우 자신에게 편지로 알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함.

- **北노동신문, 김정일 2주기 맞아 ‘백두혈통 계승’ 강조(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백두혈통 계승’을 강조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유일 영도체계를 굳게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함.
 - 신문은 1면 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에서 김 국방위원장을 기리면서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피줄기”라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며 대를 이어 깨끗이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힘.
 - 이어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둘레)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깨끗이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함.

- **김정일 2주기…1주기 때와 닮은 점·다른 점(12/17,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첫 순서로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영상물을 내보냄.
 - 중앙TV는 작년 김정일 1주기에도 오전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9시부터는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생중계했으며 김 위원장 2주기 추모 분위기는 1주기 때와 형식은 비슷함.

-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김경희 불참·‘張 라인’ 건재(종합)(12/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인 17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실황 중계하여 보도함.
 -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의 원편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앉았고, 오른편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등 자리함.

- **北김정은 리설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경희 불참(종합)(1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2시 방송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정일 동지의 서거 2돌에 즈음해 12월 17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북한 매체가 리설주의 공개행사 참석을 보도하기는 지난 10월 16일 평양에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 관람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리설주는 최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여파로 거취가 주목됐지만 위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조선신보 “北도발 전망은 제멋대로 꾸며보는 이야기”(12/17,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북한 체제의 안정을 부각하며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평양레포트’ / ‘유엔 실행에 대한 인민의 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년간 평양에서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정치도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놓았음.
- 더하여 최근 장성택 숙청에 대해 “유일영도체계의 확립, 강화의 계기점인 것과 동시에 ‘낡은 시대와의 결별’, ‘악습에 대한 단죄’로 (북한 주민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함.

● **北, 張 숙청과정 ‘김정은 우상화 노래’ 연이어 발표(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확인한 결과 노동신문은 장성택 실각설이 나온 지난 3일부터 장성택 사형 집행 보도 다음날인 14일까지 새로 만든 김정은 우상화 가요 5곡을 연달아 게재했음.
- 뉴스는 북한이 이달 들어 유독 우상화 가요를 특별히 많이 내보내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장성택 숙청으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힘.
- 더하여 노동신문은 지난 3일 2면에 ‘우리 원수님’이란 제목의 김정은 우상화 가요를 게재했으며 다음날에는 3면에 실은 ‘내 조국 강산에 넘치는 노래’란 제목의 노래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의 노래가 강산에 넘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선물·감사로 軍心·民心 잡기(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허철수 소속부대’에 현대식 어선들을 하사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부대가 ‘물고기 대풍’을 맞도록 어선뿐 아니라 어군탐지기, 냉동차 등도 함께 보냈으며 어선 전달식 참석자들은 김 제1위원장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 어획 성과를 높여 “병사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맹세문도 채택함.

● **‘김정은 찬가’ 띄우는 北…문화예술 동원 본격화(12/19, 노동신문)**

- 최근 들어 연일 ‘김정은 찬가’를 게재하고 있는 노동신문이 19일에는 4면에 김 제1위원장의 ‘백두혈통’을 부각하며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시 3편을 나란히 실었음.

- ‘우리는 백두산 혈통밖에 모른다’라는 제목의 시는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담력도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만이 이으실 수 있는 백두산 혈통!”, “백두산 혈통의 덕에 사는 인민 백두산의 피줄기를 잃고서는 못산다” 라고 노래함.

● 北 전역서 ‘김정은에 충성’ 편지 채택 모임 잇달아(12/20, 조선중앙방송)

- 북한 곳곳에서 장성택 숙청을 지지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원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결의 편지 채택 모임들이 성(省) 중앙기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北 매체도 “위대한 영도자”…김정은 우상화 총력(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일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김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전화(포스터)와 노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함.
- 더하여 노동신문은 19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히철수 소속부대’에 어선을 하사한 사실을 보도하며 김 제1위원장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불렀으며 조선중앙방송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설명함.

● 北, 연일 ‘수령결사옹위’ 롤모델 띄우기(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사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방문한 동해안의 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 직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으로 치켜세움.
- 사업소 직원들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나서 수개월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이달 초 김 제1위원장에게 이를 편지로 보고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답장을 보내고 최근 사업소를 다시 방문해 물고기 절임창고와 냉동저장실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北 평양 곳곳 “김정은에 충성” 맹세 모임(12/21, 노동신문)

- 북한의 수도 평양 곳곳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회단체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20일 평양 천리마구역에서는 노동단체의 결의대회가 열렸고 강서구역과 만수대 언덕에서는 각각 농민단체와 청년단체의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는 여성단체의 결의대회가 열림.
- 이들 결의대회에는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이 참석했으며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나 사진에 헌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北 ‘張 숙청’ 후속조치 지방으로 급속 확산(12/22, 연합뉴스)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 이후 각 지방으로 숙청작업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숙청 후 각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행정부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며 “이 부서에서 일해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

● 北 노동신문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 수호 방패”(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체제유지에서 군대의 역할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고수하겠다고 강조함.
- 신문은 ‘선군은 자주통일 위업 승리의 확고한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선군정치가 그동안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침략책동’을 막는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며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철의 방패”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침략책동과 남한의 ‘동족대결소동’으로 한반도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철의 방패로 위용 떨칠 것”이라고 밝힘.

● 北 강원도 원산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12/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2일 원산시에서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이 진행됐다고 제막식 장면을 녹화중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동상을 제막했고,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원도희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제막함.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제막사에서 “김정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충직하게 받들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6월 고위간부에게 ‘유일영도’ 직접 연설 중문 (12/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를 모아놓고 ‘유일 영도체계’ 확립에 대한 연설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했고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이 연설을 소책자로 발행함.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이 책자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수령님의 영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조류들이 극복됐다”며 “장군님께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했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12/1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12.16,중통·중방)
- 황병서·마원춘(黨 중앙위 부부장) 동행
- 12/16, 김정은 黨 제1비서, 12.15 故 ‘김국태’(黨 중앙위 정치국 위원, 黨 검열위원장) 빈소 방문 및 화환 전달(12.16,중통·중방)
- 최룡해, 김기남, 김원홍, 김평해, 리재일, 황병서, 마원춘 참가
- 12/17, 김정은-리설주, 12.17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등 참가
-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료일꾼들과 노동자 ‘원목화’ 등 감사 전달(12.19,중방)

-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허철수소속 부대에 고깃배·어군탐지기·냉동차 등 전달(12.19,중방)
- 고깃배 등 전달 모임, 12.18 진행 및 '김정은에게 보내는 맹세문' 채택
- 12/21,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1,중방)
- 12/22,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권영옥'(대동강 구역 종합식당 노동자) 등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2,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사망(12.17) 2주기 관련 동향】
- 청년학생들의 회고모임 '그리움은 끝이 없네', 12.15 리영수(黨 중앙위 부장) 참석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2.15,중통·중방)
- 재일본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12.15 만경대 방문(12.15,중통·평방)
- 김정일 한 생의 업적을 칭송 및 김정은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이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중심의 단결' 촉구(12.17,중통·노동신문·중방)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실황중계(12.17,중통·중·평방)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軍 차수), 리영길, 장정남, 황순희, 김철만, 김기남(사회),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최영림, 현철해, 리병삼, 주규창, 김영대 등과 오형진(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상임고문),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김철성(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참가
- 故 '김국태 장의식', 12.16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12.18,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참가下 평양시 교외 애국열사능에서 영결식 진행
-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5권(1962년 8월~12월 기간 발표한 연설·결론·담화 등 101건 노작 수록) 출판(12.18,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다시 '경제발전' 독려... '장성택 국면' 벗어나기(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실린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힘차게 전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 각지 생산 현장에서 올해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함.
- 신문은 강원도 원산 경공업 공장, 평안남도 안주 절연물 공장, 평안북도 신의주 기관차대 등이 올해 연간 계획을 이미 달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 '생산 돌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의 진로는 경제건설·인민생활 향상”(12/2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0일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은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 세계가 주시하는 조선의 진로’라는 글에서 숙청으로 단결이 강화된 북한의 진로는 명백하다며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받아 안은 감사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라고 밝힘.

다. 군사

● 北,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건군 이후 처음(12/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평양에서 건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가 진행된다”고 보도함.
- 중앙TV는 이번 회의가 군인들에게 수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후생복지)을 개선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함.

■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장병들, 12.16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맹세문 낭독)·리영길(軍 총참모장)·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참가下 ‘김정은에 충성 맹세모임(영도의 유일중심·결사옹위) 및 분열행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12.16,중통·중·평방)
- 인민군 장병들은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최고사령관을 단결·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충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함(최룡해)

라. 사회문화

● 北 지난해 1인당 GDP 783弗…한국의 3.4% 수준(12/17, 연합뉴스)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발간된 ‘통일경제 2013 겨울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의 783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2만 3천 113달러의 3.4% 수준이며 방글라데시는 850달러, 미얀마는 835달러로 밝힘.
- **北 금강산 개발 ‘장밋빛’ 청사진…콘도에 카지노도(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접속한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 웹사이트에서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며 ‘1단계 개발 총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보도함.
 -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계획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나 대북 소식통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긴 했지만 전체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11년 5월 법으로 금강산관광특구를 설치하고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여행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하고 있음.
- **北, 주말마다 스포츠경기…“분위기 전환용” 분석(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주말마다 평양에서 인기 스포츠 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내각 체육성 관계자를 인용해 “선수들의 육체·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목적으로 주말마다 체육 경기들을 조직·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한다”고 밝힘.
- **北TV “평양 강동군서 신석기 무덤 발굴”(12/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과학자들이 평양시 강동군 란산리 주현동의 자연동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무덤 유적을 발굴했다며 “무덤들에서는 ‘조선 옛 유형 사람뼈’ 9개체와 질그릇 조각을 비롯해 많은 유물이 나왔다”고 보도함.

2 대외 관계

-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김정일 추모’ 전문(12/16, 조선중앙통신)**
 -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12월 17일)를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전문에서 시리아 국민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친선적인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굳건한 친선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완성차업체, 북한에 중형택시 300대 납품(12/18, 연합뉴스)**
 - 중국의 완성차 업체가 최근 북한에 중형택시 300대를 납품했다고 중국 언론을 인용해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의 자동차 전문 인터넷매체인 오토홈(汽車之家)에 따르면 중국의 순수 국산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는 이날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뒤쓰(鄂爾多斯) 생산기지에서 북한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 수출용 택시 300대를 인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힘.
- **WFP “北 장성택 사건, 대북지원 활동에 영향 없다”(12/19, 미국의소리(VOA))**
 - 디르크 슈테젠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며 “그 사건은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VOA가 19일 보도함.
 - 슈테젠 소장은 북한 주재 유엔과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등 평양의 분위기는 평상시와 같다고 전함.
- **룩셈부르크, 15만弗 규모 대북 식량 지원(12/20, 미국의소리(VOA))**
 - 룩셈부르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제 구호단체에 15만 달러(약 1억6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달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에 15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북한 강원도 내 취약계층 4천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 중국과 경제·문화교류 확대 노력 지속(12/2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에서 전날 개막한 제2회 허베이성 특색문화상품박람회교역회에 참가함.
- 중국과 대만,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공예품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 북한은 전통주, 유화, 애니메이션, 우표 등을 10여종의 상품을 출품함.

● **北 관광객 유치 '총력전'...물놀이장·승마장도 활용(12/22,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의 최신식 대규모 물놀이장과 승마장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Uri Tours)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달 9일과 12일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내 각종 시설을 각각 소개하며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헬기(CH-47D) 14대를 우리 군에 판매 하려는 것은 '남북대결을 더욱 부추겨 그를 구실로 새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야말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이라며 '자위적 억제력 강화' 강조(12.15,중통·중방·노동신문/대결을 노린 무모한 망동)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과도르)' 참가 北 청년학생 대표단, 12.12 숙소에서 '원수님(*김정은)을 그리는 밤' 모임 진행(12.16,중통·평방)
 - 한편, 12.11·12 운영된 '반제재판소'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행위(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 등)를 기소 청구하고 심의했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통신, 대선 1년 차대통령 비난…“역사심판 받을 것”(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승리 이후 보인 국정운영을 ‘공약 파기’, ‘민생 파괴’, ‘공포정치’ 등으로 폄훼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18대 대선 1주년 다음날인 이날 ‘달콤한 공약, 쓰거운(쓴)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200여개의 대선 공약을 ‘남발’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박근혜의 지난 1년간 공약 파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민주, 민생의 철저한 폐허 지대, 불모지로 화했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단체 “南 정부, 철도파업 탄압은 폭거”(12/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의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초보적인 생존의 요구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기 위해 펼쳐나선 남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남한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모독하고 파업 참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쇼적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유신 독재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매체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현상 소개(12/20,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보며’라는 제목으로 북한 유명대학 중 하나인 평양 김책공업종합대 교수가 쓴 기고문을 실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기고문은 지난 10일 고려대 학생이 철도노동자 무더기 직위 해제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일침을 가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실과 이후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자보 현상에 대해 설명함.

■ 기타 (대남 일반)

- '개성공단 남북공동투자 제4차 회의(12.19,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진행 및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된 이후 정상화해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 토의,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12.19,중통)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라도르)' 참가 北 청년학생 대표단, 12.12 숙소에서 '원수님(*김정은)을 그리는 밤' 모임 진행(12.16,중통·평방)
- 한편, 12.11·12 운영된 '반제재판소'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행위(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 등)를 기소 청취하고 심의했음.'

12.23-12.29

12 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백두혈통 뿌리’ 김정은 조모 김정숙 띄우기(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2면 상단에 ‘김정숙 동상’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는 군인들의 사진과 함께 찬양 기사를 통해 “어머님은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영생하신다”며 김일성 주석 보위에 앞장섰던 김정숙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따라 배우자고 독려함.
 - 김정숙의 동상은 항일빨치산 활동 시기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김일성에게 날아오는 총탄을 몸으로 막으며 일본군에게 권총을 쓰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김일성을 목숨으로 옹위하는 김정숙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선전되고 있음.
- 北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軍 신진간부들 대동(종합)(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12월 24일을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밝히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헌화하고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과 훈장보존실, 유품 보존실 등을 둘러봤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김정일 최고업적은 영도 계승문제 해결”(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낼수 있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 중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라고 주장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을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백승의 지략,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영군술을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 인민의 ‘일심단결’을 촉구함.

- 더하여 신문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과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끝까지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단호히 짓밟아버려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은, 최룡해 건의에 張 사형승인…집행 후 눈물(12/25, 요미우리(讀賣)신문)**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의 건의에 따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간부 3명이 건의해 김 제1위원장이 사형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광저우(廣州) 발로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장 전 부위원장의 사형이 집행되고 닷새 후인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울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밝힘.

● **北 김정은 군부대 방문…“전쟁은 미리 광고하지 않아”(종합)(1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24일)을 맞아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년) 기념일인 24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일선 군부대 시찰은 장성택 처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더하여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초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운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빛날 것”이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 ‘선군정치 역사’ 강조…군부 위상 강화 영향인가(1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정치’의 역사를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미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시작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빛나는 영광의 행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역사적 시기로서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행사 시작(12/26,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12월30일)을 나흘 앞두고 경축행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을 인용해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의 경축모임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현상주 직총 중앙위원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부문 모범일꾼 표창 직접 수여(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참가했던 군부대 선장·어부에 대한 국가표창식에 참석해 이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꾼(간부)과 선장, 어로공(어부)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이들에게 표창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수여했다”고 밝힘.

● 北 ‘헌법절’ 맞아 ‘김정은 유일영도’ 거듭 강조(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밝힘.
- 더하여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전 당과 온 사회에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박봉주 총리, 張 숙청 후 단독 현장시찰 재개(1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박 총리가 평양 용성-서포지구의 살림집(주택) 건설현장과 평양비행장 2hang역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27일 보도함.
 - 박 총리의 현지시찰 소식이 전해진 것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실각이 결정되기 전날인 지난 7일 국가과학원 방문 보도 이후 20일 만에 처음이며 이번에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시공계획과 건설자재 공급 실태를 알아보고 협의회를 열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한해 동정보도, 김정일 ‘능가’(12/27, NHK)**
 - 올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국영 매체의 동정 보도 건수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의 연간 최다 기록을 뛰어 넘었다고 NHK가 27일 보도함.
 - NHK는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 올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동정 보도 건수는 2012년(152회)보다 47% 늘어난 224건으로 집계함.

- **北 장성택 처형후 첫 대사급 소환…‘신호탄’ 되나(종합)(12/27,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광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 부부가 27일 호송 조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발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광철 대사는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관리하던 외무성 라인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은,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격술훈련 참관(종합)(12/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제3168군부대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훈련을 본 뒤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철용성 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됐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훈련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수령 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며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함.

●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식량문제 해결” 강조(1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 등 내년도 농업 부문 과업을 논의,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이번 회의는 ‘2013년 농사 총화와 다음해 농사대책에 대하여’를 안건으로 열렸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 등 내각 성원들과 함께 내각 직속기관 간부, 각 도 인민위원장 및 농촌경리위원장, 각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협동농장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석함.

● **北, 張숙청 후 내각기능 회복 양상…박봉주 역할 주목(1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박봉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려 올해 농업부문 성과를 총화하고 내년 농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함.

- 올해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0월에 이어 12월에도 열려 5회나 소집됨.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기념대회…“백두혈통 사수”(12/29, 조선중앙TV)**

- 북한은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월 30일) 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최룡해는 경축 보고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로 “백두산 총대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백전백승의 역사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주장함.

김정은동향

- 12/24,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軍최고사령관 추대' 22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럽철성을 비롯한 군 지휘성원들 참가
-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 '뜻깊은 12.24' 즈음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및 장병들 축하(12.25,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서흥찬, 김수길, 박정천, 박태성, 김동화 등 동행
 - 김정은,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
- 12/25, 김정은 黨 제1비서, 12.24 故 김중세(김일성상계관인이며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빈소에 화환 전달(12.25,중통·중·평방)
- 12/27,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수산부문 모범적 일꾼들에 대한 '黨 및 국가표창수여식'(당중앙위 회의실) 참석(12.27,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2.27,중통·중방)
- 12/2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 제3168군부대·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 참관 및 기념사진 촬영(12.28,중통·중방)
 - 최룡해·김원홍·김경옥·황병서 함께 참관 및 기념사진 촬영
 - 김정은, '림혜순(남포경공업전문학교 교장)' 등 모범강연 강사들에게 감사 전달(12.28,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원산시(강원도)에 건립 제막식, 12.22 진행(12.22,중·평방·중통)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막사)·박봉주(내각 총리)·장정남(인민무력부장)·김기남(黨 비서)·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로두철(내각 부총리)·김용진(내각 부총리)·박정남(강원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
 - '김정은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김영남)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22주년 동향】
 - [노동신문 사설]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군건설위업" 칭송 및 "가장 고귀한 업적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했다"며 쏘민의 '김정은을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 것' 강조(12.24,평방·중통/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20년간 '96년 2만5,000여리, 97년 3만리, 98년 4만리의 선군장정과 사망시까지 2,490여개 단위의 무력부문 현지시찰' 칭송(12.24,중통·중방)
 - 김정일의 '선군정치·군사강국 칭송 및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강조 일색(12.24,중·평방/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영원히 승리 떨치리·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등)
- 【김정숙(김정일 母) 96회 생일(12.24) 동향】
 - 김정숙의 '항일혁명투쟁 활약상 및 수령결사옹위' 등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칭송 글(12.24,중통·평방/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정숙 동지·친위전사의 위대한 한생 수령님의 전사는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시며 등)
 - 김영남·박봉주 등 黨·국가 책임일꾼들과 黨·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인민군 등, 12.24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12.24,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 용성-서포지구 살림집 건설정형 및 평양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요해(12.27, 중 통 중방)
-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13년 농사총화, 다음해 농사대책 토의) 진행, 박봉주(총리)·리철만(부총리 겸 농업상, 올해 농사총화보고) 등 참가(12.28, 중통)
 - 회의에서는 ‘다음해 농사를 잘 짓는 문제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며,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임’을 강조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2.2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2.29, 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보고),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사회),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김영대(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참가
 -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대한 과업임.
 -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 식의 위력한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어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 함.
 - 우리의 총창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역사가 확증한 진리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 땅에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지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임.

나. 경제

● 조선신보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모습 아니다”(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모든 기업체가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한다”고 북한 경제변화의 핵심요소를 소개함.
- 이어 신보는 3·26전선공장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건설대상에 전선과 케이블을 보장할 과업이 생기면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을 하면서 집중전을 벌인다”며 “이런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 작업반마다 정확히 계산이 이뤄지고 그 평가가 노임에 반영된다”고 밝힘.

● 北김정은 공개활동 올해도 ‘경제’ 집중…전체 41.4%(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함.

- 이 가운데 경제·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것은 84건으로, 전체의 41.4%에 달했고 이 중에는 군 관련 생산 시설 현지 지도도 포함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올해 경제·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개 활동을 하며 방문한 장소는 모두 6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北, 무역항 관리 법제화…“해상무역 발전 노력”(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1월 27일자와 29일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항무감독법’을 소개함.
- 민주조선은 항무감독법의 제정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규해설 코너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을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이 법도 올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내용 2년 만에 공개(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자체 홈페이지에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며 7장 74조로 된 법 전문을 공개함.
-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 지역에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물론 재외동포도 투자, 황금평 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힘.

● 北 관리 “내각이 경제사령탑 기능 똑똑히 수행할 것”(12/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게 된다고 하며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자기 기능을 똑똑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더하여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내각에서는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질서가 흐트러진 부문들에 대한 지도와 장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北 최대수출품 무연탄, 中 수출가격 오름세(12/28, 왕이(網易))**
 - 북한의 정세 불안이 확대되면서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뉴스포털사이트 왕이(網易)가 28일 전함.
 - 이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가격은 지난달보다 t당 4~5달러(4천200~5천200원)가 오름.

다. 군사

- **北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장성택 성토장 되나(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건군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가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승고한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함.
 - 더하여 신문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군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는 22일 회의 참석자 숙소를 방문해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만선의 뱃고동 소리를 계속 울려나갈 것”을 당부함.
- **北 최룡해 측근 新군부 인사들 약진…군 원로 퇴진(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내보냄.
 - 신문은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군부 인사로 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으로 밝힘.
- **北, 건군 이래 첫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가 건군 이래 처음으로 26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

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과 물고기잡이에서 모범을 보인 어로공(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 선장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 中 언론 “북한군, 중국 국경 야간순찰·경계 강화”(12/28, 환구시보(環球時報))

- 북한이 최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야간 순찰과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8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접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발 기사에서 자체 취재 결과 북한 국경경비대가 평상시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北 “군인은 최고사령관의 전우”…軍心잡기 ‘총력’(1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최고사령관과 전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한 핏줄을 이은 전우대군, 동지의 강군”이라며 “노동계급과 농민들도, 붓을 든 지식인들도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우’라는 혁명군대의 전우관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라고 역설함.
- 신문은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의 관계를 “혈연의 동지”라고까지 표현하며 “몇 명의 투사나 영웅들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전우가 되고 전민이 총폭탄이 돼 원수님(김정은)을 옹위해 나서는 여기에 우리 전우애의 특출한 높이와 위력이 있다”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내 군사)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리영길(軍 총참모장)·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군대 책임일꾼들, 12.22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22,중방·중통)
-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12.22 인민무력부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 및 대성산혁명열사릉·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참관(12.22,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北 신문 “올해 체육·문학예술 분야 전례없는 성과”(1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불길높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며 체육과 문학예술 부문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김일성상 수상 과학자 영전에 화환(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김일성상을 받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김일성상 계관인(수상자)이며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김종세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24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北, 재외동포 투자 지원기구 신설…내년 1월부터 가동(12/29, 민족통신)
 - 북한이 재외동포들의 대북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민족통신이 29일 전함.
 -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해외동포 경제협력사무소’ 박경진(58) 소장과의 인터뷰를 홈페이지에 게재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45% 감소(12/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45%나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는 이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액이 6천200만 달러(약 658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하며 이는 지난해의 1만1천300만 달러보다 45% 감소한 액수라고 밝힘.
- **北 “美 ‘북한 위협론’은 MD체계 구축 위한 핏수”(12/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미국이 요즘에 와서 여느 때보다 북조선 위협론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북조선 위협론은 한마디로 말해 꾀변”이라고 밝힘.
 - 중앙통신은 미국이 최근 “예측불가능한 북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도에 미사일 요격체계를 수립하려 한다느니 뭐니 광고하고 있다”며 북한 위협론의 본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 체계를 구축해 중국을 비롯한 ‘지역 대국들’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스페인서 북한 관광상품 첫 출시…8일 상품 210만원(12/25, 연합뉴스)**
 - 25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북한통상정보 37호’에 따르면 스페인 여행사 ‘데스티니아닷컴(Destinia.com)’은 북한 당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지난 6월 북한 여행상품 계약권을 따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이 상품은 8일간 북한의 평양, 남포, 개성, 원산, 함흥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가격은 1천 450유로(약 210만원)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서방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을 취급하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북한 관광 상품이 나오기는 처음이라고 밝힘.

- **北, 日 특정비밀보호법 비난…“군국주의 야망”(1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최근 일본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을 비난하며 “아베를 비롯한 일본 반동들의 군국주의 야망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날 ‘자멸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에 아베 세력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발표함으로써 헌법을 수정하고 군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 **中 시진핑 주석, 北 김정은에게 연하장(12/26,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새해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연하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연하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연하장을 전달해왔다고 전함.

- **케네스 배, 12월 초 가족에 편지 후 무소식(종합)(12/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13개월 넘게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가 이달 초 가족에게 안부편지를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함.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 사는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는 최근 RFA에 12월 초 배 씨로부터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밝힘.

- **북-러, 내년도 어업쿼터 확정(12/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내년에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상대국이 취할 수 있는 어획량을 확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RFA는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4~26일 평양에서 제27차 북-러 어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내년도 어업 쿼터에 합의했다고 전함.

- 北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제2의 침략전쟁 선언” 비난(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던진 제2의 침략전쟁 선언”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자멸의 길을 가는 일본’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특급 전범자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신사는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駐北 이란 무관단, 12.23 ‘김정일 軍 최고사령관’ 추대 22돌 즈음 ‘장정남’(인민무력부장)을 통해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12.23,중통)
- 【중통사 논평】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회의에서 日당국자의 ‘북핵·미사일 위험·납치문제’ 거론 관련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 마련과 성노예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문제로 만신창이된 영상을 다소나마 회복해 보려는 어리석은 잔꾀’라고 비난(12.23,중통/저들을 알아야 한다)
- 日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파렴치한 날강도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日 당국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12.23,평방/더욱 파렴치해지는 독도강탈 책동)
- 【중통 논평】 미국의 ‘북조선위협론’은 ‘亞-태지배전략 실행의 합리화기도’로 “MD(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무력증강을 다그쳐 잠재적 적수들 견제목적”이라고 비난(12.24,중통/‘북조선위협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 美 ‘퓨연구센터’의 ‘2013년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여론조사 결과(과반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 간섭 반대, 자기문제 자체해결’) 인용,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국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12.24,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통신 “日 ‘北핵 위협’ 거론은 재침준비책동 구실”(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침략적 역사를 희석화하려는 ‘잔꾀’라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저들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납치자가 국제적으로 보편적 문제라고 언급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이어 “그것은 일본이 더욱더 본격화되는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같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문제

로 만신창이 된 저들의 영상(이미지)을 다소나마 회복해보려는 어리석은 잔 피”라고 주장함.

3 대남 동향

- 北, 朴대통령에 “신뢰나 대결이나 선택하라” 공개질의(종합)(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고 공개 질문을 던지고 박근혜 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이날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된다고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 정책과 결별하고 이제라도 민족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면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나가겠다는가”라면서 “대결과 전쟁은 자멸의 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단체 “민노총본부 강제진입은 야만행위”(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직총)는 27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대해 “야만행위”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직총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경찰의 이번 공권력 투입을 “수천만 근로 대중을 파쇼통치의 노예로, 적으로 보는 반인륜적인 유신독재의 후예들만이 저지러 수 있는 야만행위”라고 주장함.

- 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직(종합)(1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인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인권과 생존권,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파쇼적 탄압만행”이라고 맹비난함.
 - 이어 박근혜 정부를 “극악한 인권교살자”라고 규정하면서 “파쇼폭압에 광분하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말로를 답습하지 않으려거든 파쇼탄압을 당장 걷어치우고 인민들의 생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함.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12.25)】 대통령에게 ‘신뢰나 대결이나’ 등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박 OO 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2.25,중통·중방)
-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OO 정권의 대결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신뢰인가 대결인가, △외세가 우선인가 민족이 우선인가, △누가 도발자인가, △비방중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증지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선택은 누가 바로 해야 하는가.
-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발언(정쟁을 그만두고 민생문제 해결) 관련 ‘철도파업’ 및 ‘철도 민영화’를 거론하며 ‘독점 재벌들을 비호하면서 노동자들은 억압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12.25,평방/집권위기 모면을 위한 민생타령)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30-12.31

12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최고사령관 김정은 유일중심으로 받들자” 독려(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민족적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최대의 혁명적 경사”라며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원수님의 두리(둘레)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라고 30일 촉구함.
 - 신문은 이어 “그가 누구이든 감히 당에 도전하고 백두의 대업을 가로막으려 든다면 혁명의 붉은 칼, 무자비한 철추로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전군이 김 제1위원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장성택 측근 줄소환…이번엔 홍영 유네스코 부대표(종합)(12/30, 베이징 소식통)
 - 박광철 주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 부부가 지난 27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소환된 데 이어, 30일에도 유네스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홍영 부대표가 서우두 공항을 통해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소환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베이징의 소식통들이 30일 밝힘.
 - 목격자들은 홍 부대표가 서우두 공항에서 고려항공에 탑승했으며,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반 여행객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함.
- “중국내 北공관원들 외출자제·행동조심”(12/30, 외교소식통)
 - 장성택 숙청사건 이후 중국 내 북한공관 직원들이 외출을 꺼리고 개별행동을 줄이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30일 전함.
 - 소식통은 “(최근) 북한공관 직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삼가면서 큰 무리를 지어 단체로 움직이고 있으며 음식재료도 한 번에 일괄구매해 배분하

고 있다”고 전하면서, 장성택 측근으로 분류돼 ‘소환임박설’이 제기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역시 여전히 대외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서비스) 및 숙소 건물들을 둘러보고 식당, 상점, 출판물판매소, 간이매대 등을 찾아 서비스 준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삭도(리프트)를 타고 정점(꼭대기)까지 오른 뒤 “삭도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설치됐고 주로 상태도 나무랄데 없다”고 평함.
- 스키장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김병호·마원춘 부부장, ‘김정일 금고지기’로 불린 전일춘 39호실장, 박명철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조선총련 의장에 새해 축전(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허 의장을 비롯한 조선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지난해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총련 조직을 반석같이 다지고 재일 조선인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12/31,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12.31,중동·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강석주, 김양건, 한광상, 전일춘,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리재일, 황병서, 김병호, 마원춘, 박명철 동행
-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하게 하라고 지시
- 김정은, 와우도구역 해방소학교 교직원 학생 등에 감사 전달(12.31,중방)

나. 경제

- **北에 ‘가족영농제’ 뿌리내리나…“새방식 모두 환영”(12/30,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내년부터 가족 단위 영농제라고 할 수 있는 ‘포전담당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목되며, 북한 내각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내년 농사만 단일 안건으로 다룬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의 원만한 실행에 집중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밝힘.
 - 특히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된 분조관리제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는 문제 ▲농장원이 자신의 포전을 알뜰히 관리하면서 농사를 책임지고 하기 위한 문제 ▲각 협동농장에서 분조장을 능력 있는 농장원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 등이 강조됨.

- **북한, 중국 지방정부에 경제개발구 지원 타진(12/30, 길림신문)**
 - 북한이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각지에 지정한 경제개발구 건설을 위해 중국 측에 지원 의사를 타진하고 나섰다고 30일 중국 길림신문(吉林新聞)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은 최근 양강도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지린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縣)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함.

- **北, 모내기 시작…손으로 모심기 눈길北, 모내기 시작…손으로 모심기 눈길(12/30,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 조선중앙TV는 11일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30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수확된 농산물에서 국가납부 몫을 바친 나머지를 (개인들에게) 현물로 분배한다”라며 “현물분배를 받은 농민은 농산물을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對中 무연탄 수출 ‘張 속칭’ 직전까지 증가(12/31,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초 장성택 속칭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1월 한 달간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1억 2천145만 달러 어치로 10월(1억284만 달러)보다 약 18%(1천860만 달러) 증가했으며, 이로써 북한의 월간 대중(對中) 무연탄 수출은 지난 8월 6천437만 달러에서 9월 9천165만 달러로 느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다. 군사

- **北,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軍 쫓기모임 개최(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에 해당) 군인 쫓기 모임이 4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함.
 - 신문은 리영길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쫓기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호명하지 않음.

라. 사회문화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 맞아 ‘축제분위기’(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군 협주단의 음악·무용 종합 공연인 ‘무장으로 받들자 김정은 장군’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정·군 간부와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합창곡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 김정은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음. 또한, 평양의 당 창건 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선문 광장 등에서는 청년학생들의 경축 무도회도 열림.
- **北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경축 무도회北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경축 무도회(12/30, 조선중앙TV)**
 - 평양 모란봉극장과 동평양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과 만수대에술단 삼지연 악단의 음악 공연이, 평양교예극장과 보통강교예극장에서는 교예 공연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 이 밖에도 근로자와 청년학생이 전국 각지에서 시와 노래, 웅변 모임을 열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한편 중국 ‘항일열사’ 장울화의 유가족과 북한 아동을 돕는 진달래 아동기금 회장인 진달래 사파리니는 김 제1위원장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음.

2 대외 관계

- **中, 내년 두만강에 교량 신설…北 나선특구 직통(12/30,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중국이 내년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연결하는 교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30일 전함.
 -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吉林)성 성장은 장춘(長春)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 위안허(圈河)지역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교량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힘.
 - 지린성 인민대표대회는 수년 전부터 기존 교량이 노후해 양국의 인적 왕래와 화물 운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량 신설이 시급함을 지적해왔으며, 기존 교량은 1937년 건설됨.
- **北, 中 연변대 교수에 박사학위 수여(12/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중국 연변대에 근무하는 교수 3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변대 교수인 김은송과 조홍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한민족의 철학·윤리를 체계화한 공로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음. 또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학문적으로 이바지한 황금해에게는 경제학 박사학위가 수여됨.
 - 북한은 과거에도 한민족 문화나 북한 발전에 공을 세운 중국 대학 교수에게 학위를 수여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북한말 발전에 이바지한 연변대 교수 김성희, 황선자, 려문호가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음.

- **北 통신 “미국이 아태지역 평화 위협…억제력 필요”(12/30,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30일 ‘지역 평화의 방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북한의 군비 강화 노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과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궤변’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의 현대화와 전쟁 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그 노력들을 엄중히 저애(방해)하는 화근”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은 물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임의의 도발에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며 북한의 군비 강화 노력을 정당화함.

- **北 피바다가극단, 中 연변 겨울축제서 상설공연(12/31, 연변일보)**
 - 북한이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유명 가극단이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겨울관광축제에서 상설공연에 들어갔다고 31일 연변일보가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3대 가극단 가운데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은 지난주 개막한 ‘2013 지린·연지 창바이산 국제빙설축제’에 참가해 매일 저녁 한차례 공연하고 있음.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축제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임.

- **北, 러시아 테러사건에 위로전문…“온갖 테러에 반대”(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러시아 볼고그라드에서 최근 발생한 연쇄 테러사건에 대해 “온갖 형태의 테러 행위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볼고그라드 테러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이어 “이번 테러 후과(여파)를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의 공고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에 전적인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어선 동해 NLL 남하…단순 표류 추정(종합)(12/30, 연합뉴스)**
 - 한 어선이 30일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내려와 해군 함정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오후 4시께 울릉도 동북방 50~60마일 지점에서 해군 초계함이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며 “이 어선은 엔진 이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군은 북한 어선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NLL을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은 NLL 남쪽 10마일 지점 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짐.

- **北 대화공세 본격화하나…조평통 내세워 “관계개선”(1/2,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2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평통 서기국의 전종수 부국장장 황철 부장, 로학철 부장의 인터뷰 방송을 내보냄.
 - 전종수 부국장은 지난해 6월 무산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며, 황철 부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분야에서 활동해왔음.

나. 경제사회문화

- **北, 합의개고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납부 요구(종합)(12/30, 연합뉴스)**
 -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세무소는 지난 23일 입주 기업들에 보낸 ‘미납 세금 독촉 공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12월

북한동향 일지

<11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1/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전사자(10월 중순, 구잠함 233호 지휘관·해병) 묘 방문
11/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再次 방문(중통)
11/4, 중통·중방	중국 '우다웨이'(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평양 도착 간략 보도
11/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11/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故 '김병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 영전에 화환 전달
11/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에 운전기재 전달
11/6, 중통·중방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 현지요해
11/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명록 사망(11.6) 3돌 즈음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 방문
11/9,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
11/10,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모범학습 강사들에게" 감사 전달
11/1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4차 적공일꾼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1/11, 중통·평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 현지
11/12,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11월2일 공장 현지지도
11/12,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귀성제염소 현지요해
11/1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시리아 시정운동 43돌" 즈음 '北-시리아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강조 축전
11/1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1.14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1/1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현지지도 및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
11/1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1/18,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전체 노동계급에게 감사 및 선물 전달
11/20,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 시찰
11/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
11/30,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방문 및 군부대 군인들과 기념 촬영
11/30,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및 삼지연혁명전적지 방문

<12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2/2,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강계시 여러 부문사업 현지 요해 및 협의회 개최
12/5,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 등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2/7,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국가과학원사업 현지 요해 및 과학자 - 기술자들 격려와 관계부문일꾼 협의회 개최
12/7, 중통·중방	박봉주·최룡해·김기남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
12/1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들의 '사경에 처했던 군인들 완치 소행'에 감사 전달
12/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 현지지도
12/1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
12/1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
12/1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리설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1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료일꾼들과 노동자 '원목화' 등 감사 전달
12/21,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2/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권영옥(대동강 구역 종합식당 노동자) 등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12/22, 중통·중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리영길(軍 총참모장)·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군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
12/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軍최고사령관 추대' 22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24, 중통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2주년·김정숙 생일 96주년] 경축 조선인민군협투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및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관람
12/24, 중통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및 리영수(黨 부장)·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관람
12/24, 중통	김영남·박봉주 등 黨·국가 책임일꾼들과 黨·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인민군 등,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중통)
12/2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뜻깊은 12.24' 즈음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 방문 및 장병들 축하
12/26, 중통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최룡해·장정남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12/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수산부문 모범적 일꾼들에 대한 '黨 및 국가표창수여식' (당중앙위 회의실) 참석
12/27,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용성-서포지구 살림집 건설정형 및 평양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요해

12/2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 제3168군부대·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 참관 및 기념사진 촬영
12/28, 중통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13년 농사총화, 다음해 농사대책 토의)’ 진행, 박봉주(총리)·리철만(부총리 겸 농업상, 올해 농사총화보고) 등 참가
12/29, 중통·중방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2주년 즈음 “김정은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부 발표회, 12.28 최룡해·리영길·장정남 등 참가하 진행
12/29, 중통·중방	黨 중앙군사위, 12.28 최룡해·장정남 등 참가하 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옥류관에서 개최
12/29, 중통·중·평방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12/3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 시찰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